문화매일신문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Seongju Office of Education

제 1565호 2024/ 4 / 15 / Mon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건립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경과보고 개최

해인사 ‘장경판전’에 버금가는 유교판 천년 경전각 건립 -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컨트롤타워, 보존 · 관리 · 활용 미래모델 제시

경상북도는 12일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경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류철균 경북연구원 원장 및 세계유산·건축·조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과 문화재청, 기록유산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이하 ‘경전각 건립’) 의미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의지를 다졌다.

경상북도는 ‘경전각 건립’ 경과 설명과 함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12명의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위촉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

위촉식 이후에는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의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경전각 건립’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경상북도‘세계유산 미래 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2022년에 사업 건의가 있고 난 후 현재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경전각 건립’은 도내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64,226점)’과 60만여 점에 달하는 국내 최다 국학 자료 등 유교문화 기록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설 건립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유교문화의 중심인 경상북도의 랜드마크로 해인사‘장경판전’에 버금가는 K-culture의 핵심 허브로 육성한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 자료, 특히 목판을 위한 별도의 수장 시설이 있으나 시설 노후, 협소한 공간과 함께 지속적인 기증·위탁자료의 유입이 예상되어 새로운 관리시설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에 도는 국학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시설과 전 국민의 문화 향유를 충족할 수 있는 첨단 전시·교육시설의 건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록유산 보존·활용의 미래지향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천년 국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열린 국학보존센터, 경전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천년 국학 자료의 보존·전시·연구 기관, ▶과학적 보존 환경을 구축한 열린 수장고, ▶유교문화의 동시대 미래가치 확산 플랫폼, ▶지역활성화, 관광의 열린 문화공간 구축을 목표로 ‘경전각 건립’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사업비가 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성공 전략을 마련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추진위원회와 함께 건립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건립 필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서남부권 투자유치 확대 팔 걷어

전라남도는 12일 서남부권의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와 첨단·신성장산업, 지역특성화 업종 등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도-시군 투자유치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목포, 나주를 중심으로 장흥, 영암, 함평, 영광 등 전남 서남부권 12개 시군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투자유치 성과와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 자원을 연계한 투자유치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군별 주요 논의 사항은 ▲목포 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나주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기업 유치 ▲장흥 식품제조·가공기업 기업 유치 ▲강진 제2일반산단 조성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기자재 기업 유치 ▲영암 삼포지구 스마트도시 건설 ▲무안 항공특화산업 기업 유치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기업 유치 ▲영광 이(e)-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완도 해양치유 레저리조트 조성 ▲진도 군내일반산단 기업 유치 ▲신안 압해 농공단지 조성 등이다.

전남 서남부권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개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신성장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됐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 가능성이 커 기업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곳이다.

이에 전남도는 분야별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입주수요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서남부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오는 6월 서남부권 시군 중심으로 한 기업 대면 투자협약도 할 계획이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다”며 “시군의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경기도미술관,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우리가, 바다》개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추념전《우리가, 바다》개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4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우리가, 바다》를 개최한다. 전시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동시에 예술을 통해 재난에 대한 사회적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미술관은 참사 당시 합동분향소가 있던 화랑유원지에 위치해 있으며 단원고등학교를 마주하고 있다. 미술관은 안산의 지역공동체로서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질문하고 시민들과 함께 10주기를 추념하며 재난의 상흔에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자 한다.

《우리가, 바다》는 세월호참사 이후 슬픔과 고통을 내포한 ‘바다’가 그 이전과 같은 바다가 될 수는 없지만, 생명과 순환을 상징하는 ‘바다’의 의미를 소환하여 사회적 재난을 비춰보고자 했다. 전시의 제목인 “우리가, 바다”는 3가지 ‘바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재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함을 의미하는 ‘바로 보는 바다’이다. 둘째는 재난을 겪는 사회에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전해야 할 위로를 담은 ‘바라보는 바다’이다. 셋째는 재난에 대해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이루어야 할 바람을 담은 ‘바라는 바다’이다. 3가지 뜻의 ‘바다’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바(로보)다”
“우리가, 바(라보)다”
“우리가, 바(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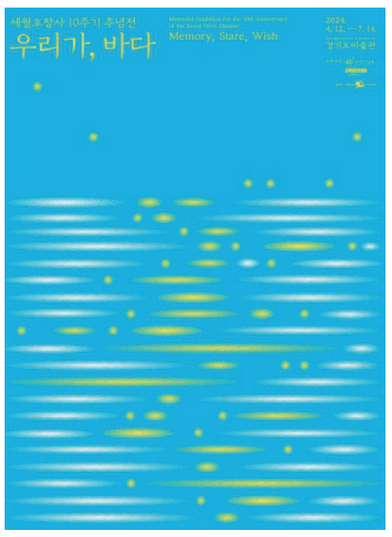
전시에는 회화·조각·영상·설치·사운드·사진·퍼포먼스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17인(팀)의 작가가 참여했고, 특히 1940년대생부터 1990년대생까지 세대를 넘어 공통의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예술가의 사유를 전한다. 작가들의 사유는 매체도 세대도 주제도 다르지만 결국 예술을 통해 공통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이야기로 수렴된다.

’우리가, 바로보다‘는 세월호참사를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 또는 개인의 경험에 비롯됐으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우리가, 바라보다‘는 희생자와 유가족 뿐 아니라 참사를 바라보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겪었을 아픔에 대해 예술로서 위로를 전한다. 특히 안무가 송주원의 〈내 이름을 말해줘〉는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댄스필름으로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몸짓으로 하나하나 새기며 추모의 마음을 담았다. ‘우리가, 바라다’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공동체의 의미, 생명의 가치, 실제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자세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다루는 작품을 한데 모았다. 3,000명의 관객참여로 완성되는 안규철의 〈내 마음의 수평선〉, 일본 노토 지진을 다룬 리슨투더시티의 〈재난 이후〉, 세월호 선체와 팽목항의 흙으로 제작한 전원길의 〈잊을 수 없는 별들〉, 청년세대의 기록을 담은 황예지의 〈안개가 걷히면〉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들이다.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4.16공방’ 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손으로 한땀한땀 제작한 공예작품도 만날 수 있다. 경기도미술관 로비에서 4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우리가, 바다》전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만날 수 있으며, 유리공예, 터프팅, 압화 등의 작품과 유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 2점도 설치된다. 전시 관람료는 모두 무료이다.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개막일인 4월 12일과 폐막일인 7월 14일에는 퍼포먼스 작가 오로민경이 작가 김선기와 함께 자연으로부터 찾은 소리를 통해 공동의 위로와 기억을 잇는 사운드 퍼포먼스 〈기억 위로 얻은 소리들〉을 선보인다. 4월에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재난을 소재로 한 작업을 펼쳐온 작가 김지영이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공유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가진다. 5월에는 일상의 순간을 포착하여 회화작업을 펼쳐온 이우성 작가와 함께하는 드로잉 워크숍이 진행되고, 6월에는 개인의 삶을 소재로 사진과 글쓰기 작업을 하는 황예지 작가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포토에세이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7월에는 리슨투더시티가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장애-비장애인 통합 재난 대비 워크숍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를 진행한다. 초·중·고등학생 단체 방문객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체 대상 전시 투어 프로그램도 5월부터 진행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북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경북도 및 도교육청 대상,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 배한철 의장,**"도민을 대신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집행된 예산을 검증하는 만큼, 면밀한 검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도록 최선을 다할 것"**당부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과 기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며, 도의원 3명, 전직 회계공무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10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청도)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을 선출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3개팀으로 구성하여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검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에 걸쳐 실시하며, 도교육청의 지난해 총 세입은 6조 3,847억원(전년도 6조 8,227억원 대비 4,380억원 감), 총 세출은 5조 6,036억원(전년도 6조 2,252억원 대비 6,216억원 감), 순세계잉여금은 1,083억원(전년도 562억원 대비 521억원 증)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북도의 결산검사는 오는 18일 부터 30일까지 13일간 실시하며 지난해 총 세입은 13조 4,216억원(전년도 13조 9,584억원 대비 5,368억원 감), 총 세출은 12조 5,962억원이며(전년도 12조 9,625억원 대비 3,663억원 감), 순세계잉여금은 2,899억원(전년도 3,617억원 대비 718억원 감)으로 보고되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의 충격이 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번 결산검사에서 대표를 맡은 이선희 위원은"지난해에는 정부의 세수예측 오류로 인해 정리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돼, 당초 계획된 하천재해예방사업,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 등의 사업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면서,"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예산이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였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한철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결산검사위원들이 도민을 대신해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집행된 예산을 검증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통영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통영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검토

통영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제22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통영시의회 배윤주 의원(대표위원), 김태균 의원 2명을 비롯하여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통영시의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시행한다. 통영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심의 후 의결함으로써 결산절차가 마무리된다.

김미옥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결산검사만 충실히 하여도 행정의 정책,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므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결산검사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준/기자

대구 북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차대식 의장, **"예산 집행 결산이 중요한 만큼 북구의 예산집행이 관련 규정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심도 있게 점검,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해

차대식 대구 북구의회 의장은 4월 12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구 북구의회는 지난 2월에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현수 북구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4명(윤은경 전 의원, 송미숙 전 공무원, 이윤영 공인회계사, 임기완 세무사)을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공공회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내역,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제287회 정례회에 상정돼 의회 승인 절차를 밟는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예산 편성 못지않게 집행 결과의 결산이 중요한 만큼 북구의 예산집행이 관련 규정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심도 있게 점검해 북구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남해군 조례의 정비 및 발굴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남해군 연실연구회"가 지난 4월 12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남해군 조례의 정비 및 발굴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남해군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 불부합 및 미비점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입법 분야 전문가의 기준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정비와 남해군에 적합한 정비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장행복 대표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전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추진 개요를 보고하고, 연구과제 구체화를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장행복 대표의원은 "창의적이고 참신한 조례를 발굴하여 자치입법의 실현으로 지방의원의 책무와 사명을 다하길 바라며",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임태식 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층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해 줄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자치입법을 통한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 연실연구회는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용준/기자

영덕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손덕수 의장, **"결산검사는 영덕군의 예산 편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토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해

영덕군의회는 지난 11일, 영덕군의회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성철 부의장(대표위원)과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이며, 지난 제30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지난해 영덕군의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검사하고 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성철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영덕군 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덕수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영덕군의 예산 편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브랜드연구회, 발대식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용인시 도시브랜드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활동에 나섰다.

의원연구단체 도시브랜드연구회(대표 장정순)는 12일 오후 3시 30분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용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조사·연구하고, 용인 특성을 반영한 도시브랜딩 방향을 제시하고자 결성됐다.

용인특례시의 상징물 재정비 계획에 발맞춰 용인시 도시브랜드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를 제언할 방침이다. 특히,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인 장정순 의원과 간사를 맡게 된 이상욱 의원을 비롯해 남홍숙, 황재욱, 김상수, 김영식, 황미상, 김병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활동 목적 및 활동 방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대식 후 용인특례시 도시기획단에서 도시브랜드 종합 개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장정순 대표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는 관광객들이 여행 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용인시만의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발굴해 용인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쉽과 예리한 통찰력의 소유자!』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자'를 집중 조명하다.

위대한 지도자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게 아니라 자신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정체에 더해 주변의 아름다움들이 조화를 이뤘을 때, 탁월한 리더쉽을 갖춘 리더자가 탄생하는 법이다.

지금 이곳 영주.영양.봉화에 진정한 리더쉽과 통찰력을 갖춘 분이 우뚝 둥지를 틀었다. 이 지면을 통해 지난 기간의 역경을 딛고 당당하게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자의 국회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집중 조명해 봤다.

취재진과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으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예견된 필연이었다. 그의 이름을 들은 것은 지난해 10월 22일, 본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갑형형님(前 영양경찰서장)이 전화를 걸어와 다짜코짜로 "동생! 이제 곧 임종득 이란 육사 장군출신이 지역구에 나오니 이유불문하고 적극 도와 주게!"라는 명령?이었다.

이에 저 형님께서 천거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훌륭하고도 남을 분이라 생각돼, 대뜸 "충성! 잘 알겠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지난 11월 초순경, 본인의 사관학교 동기생인 정모씨(現 대학 교수)가 전화로 "윤동기!! 이번에 그 쪽으로 임종득 육사 42기생인 육군소장으로 예편, 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했던, 나와 아주 각별한 사이니 적극 도와 주게."라는 전화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구·영양·의성·영주· 봉화· 울진, 등등에 사는 예비역 후배들이 너도나도 전화로 "선배님! 임종득 장군이 국회의원에 출마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 였고, 특히, 안동 거주 오희찬 동생(친구의 동생, 학군장교 출신, 예비역 지휘관 역임)이 전화로 "형님! 임 장군 진짜 멋진 분입니다. 꼭 국회의원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전화였다.

이처럼 지난 10월부터 여기저기에서 온통, 그를 도와주라는 것이었다. 이에 도대체 얼마나 멋진 분이기에 이렇게도 이구동성으로 도와 주라고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11월 초순경, 의문의 전화가 걸려와, 대뜸 "충성! 선배님! 임종득입니다. 도와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고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왜. 형님, 동기생, 후배 예비역 지휘관들이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지.....

솔직히 경찰대학 출신이 순경출신 상급자 보고 선배님이라 부르지 않는 불문율처럼, 육사 출신 장교들이 타출신 보고 선배님이라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럼없이 본인에게 선배님!이라 부른 것이다. 옛말에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던가? 그의 인품과 대인관계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도와주라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까?

이에 본인은 주저없이 비록 선배장교였지만, 그에 대한 예의를 깍듯이 갖추고 "장군님! 한번 해 보십시다"며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아는 많은 지인분들을 한분한분 그와 연결 시키면서 지지세를 넓혀 나갔다.

그리고 그에게"본인은 아무 욕심이 없다. 출마하고 싶은 생각도, 관변단체 장도, 당직자도 그 어느 것도 관심이 없다"고 밝히면서, "본인의 꿈은 **첫째**, 부자영양군이 되게 해달라 **둘째**, 그동안 이곳은 現 군수 이전, 12년간 편가름으로 점철돼 한집 건너 원수처럼 사는게 너무나 가슴 아팠는데, 두번다시 그런 사람이 이곳 영양의 위정자로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것만이 본인의 소원이다"라고 밝혔고, 그는 기꺼이 본인의 뜻에 화답해 주었다.

이런가운데, 지난 해 12월, 중앙선관위의 울진군이 떨어져 나가는 선거구 획정안이 발표 됐고, 본인은 이전부터 주야장천 그의 지지를 외쳤지만, 모두의 생각들은 요지부동이었다. 큰 일을 할 사람들은 판단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분명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지에 깃발을 꽂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저리도 아둔할까? 안타까웠다. 그나마, 현직의 A씨는 직접 활동을 할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본인의 뜻을 매우 존중해 주고 기꺼이 동참해 주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아 아침 가족과 함께 수비면에 있는 한가지 소원만 빌어야 도와 준다는유래가 깃든 '송하 미륵불'을 찾아,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본인은 임종득 당선자가 이번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런후 지난 1월 5일, 영주에 계시는 국민의힘 자문위원이신 P모형님과 前 영주시장의 선대본부장이셨든 P모형님 등 10 여분의 형님들과의 첫 대면을 가졌다. 그는 "천군만마를 얻었다"정말 고맙다"말했다. 이분 형님들은 진심을 다해 임당선자를 위해 큰 역할을 해 줘.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본다.

한편, 지난 1월 6일, 임종득 출판기념회가 열려, 이를 특집기사화 했는데, 이일로 1월 22일, 중앙선관위 기사심의위원회에서 본 지에 경고 결정문이 내려 왔고, 모측의 제보로 영양군 선관위 조사를 받았지만, 근거가 명확해 문제가 없었지만, 이로인해 기사 작성에 애로를 느껴, 본인은 이날 신문사에 휴직 처리를 하고, 영양군청 홈페이지, 각종 수십개의 밴드에 더욱 그를 알려가면서 선관위에 선거법 유무를 검토 후 글을 게재해 왔다.

이러던 어느날, 영양군 국민의힘 사무국장에서 물러났던 B씨가 현직 프레임?이란 연유로 어쩔수없이 다시 복직을 하는 해프닝이 발생해 솔직히 심기가 편치 않았다.

그의 사무국장 재등장 변수로 인해 영양의 좋은 분위기가 혹여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다행히도 무소속 **'J의원의 임후보 지지선언'**이 있었고, 이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이 지면을 통해 J의원의 진정한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꼭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의힘의 따뜻한 품으로 안겨 주시길 부탁드려 본다.

이처럼 공천경쟁이 갈수록 절정을 이뤄갈 무렵, 본인이 결정적으로 임 당선자님의 공천을 예감·확신한 것은 2월 14일, 이날 낮에 영주시에 살고 있는 P모형님께서"동생! 모씨가 지난 4년전 1번 만나고 꼭 4년만에 전화가 왔더라.....등 등"의 전화가 걸려 왔었다.

이에 본인은 형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린 후, 이번 우리 지역구 공천은 임 당선자로 결정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결국, 이틀 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면접후 단수공천이 확정 됐다. 정녕 기뻤다. 그 누구 못지않게 영주, 울진, 봉화를 오가며 혼신을 다했다기에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또 여기저기에서'축하한다'는 대리 축하를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수고했다'는 소리에 비록 대리만족이지만, 가슴 뭉클한'찡한 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를 통해서 느낀 것은 국회의원의 그릇이었다. 국회의원은 결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민의의 대변자이다. 그러기에 늘,'입이 하나요 귀가 둘'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의작은 소리에 귀를 열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결코 지역민으로부터 바른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겨 준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나, 지금부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난 10일 끝난 22대 총선은 국민들의 따갑고 매서운 회초리가 아닌 야구방망이로 사정없이 정부여당을 죽지 않을 만큼 맘껏 두들겨 패면서도 국민의힘에게 108석을 안겨 줬다. **우리는 이 108석이란 숫자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된다. 마치 교묘하게도 108은 불교의 '백팔번뇌'를 연상시켜 주듯, 이 108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결코 잊지말고 꼭 꼭 기억해야 한다.**

자고로, '정치는 생물이다''위기 뒤 찬스라고 했다'이제 국민의힘 앞에 놓인 이 엄청난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인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다. 세상에는 독불장군도 없다. 또 학연·지연을 등에 업고 설치는 것도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 특히나 강건너 불구경 하다가 불이 다 꺼지니 내가 불을 다 끈 것인 냥, 설치는 것은 누가봐도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닌 법이다.

따라서,**'새부대에 새술을 담궈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혁신(Innovation)을 이뤄내야 한다. 비록, 공천간 나눠진 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능력을 보여준다면 어느누구를 막론하고 포용과 화합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기에, 경선기간 중, 바뿐 후보님을 오라가라 하는 지난 2~30년간 이곳 영양군을 쥐락펴락 했던 당직자분들은 임 당선자에게 더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현 체제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진취적 사고를 가진 젊고 유능한 청년·여성·중장년들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체계로 탈바꿈해 나가므로써 진정한 영양의 국민의힘 조직이 힘을 발휘해 이것이 작은 밀알이 돼 전국으로 확산돼, 우리 국민의힘이 환골탈퇴해 오늘의 뼈 아픔을 2년 뒤의 지방선거에서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자!

그는 당당하게 이곳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제22대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지·덕·체 를 갖춘 분이기에 그누구보다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 12일, 영주시 선거사무소에서 있었던 해단식에서 그가 흘린 눈물에 가슴 찡한 감동을 느끼면서 그의 진솔한 마음을 진심으로 엿볼 수 있었다.

오늘 본인은 임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그를 무한 지지하며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지역민을 섬기는 섬김의 철학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정치인이 될 그를 향해 이렇게 소리쳐 외쳐 본다.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자님 !! 짱! 』**이라고.....

끝으로, 다시한번 진심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심을 축하드리고 꼭 약속하신대로 우리 지역구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해 주시고, 특히 향후, 전개될 심각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Think ahead, think prepare(먼저 생각하고 먼저 준비하라)"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깊이 인식, 포용과 화합과 새로운 혁신을 통해 현 난국을 벗어나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당신님의 무한 승승장구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근수/기자

이천시, 육군 최초 관사 내 다함께돌봄센터(아름수리점) 개소식 개최

이천시는 지난 11일 전국 최초 육군 관사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아름수리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한 송석준 국회의원, 곽종근 특전사령부 사령관과 군 관계자, 김하식 이천시 의장, 마장면장 외 단체장 등 주요 내빈과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다함께돌봄센터(아름수리점) 본격 운영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주민들과 함께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함께돌봄센터(아름수리점) 개소를 기념했다.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아름수리점)는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123m² 공간에 활동실, 사무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장과 돌봄 교사 3명이 정원 25명의 아이들을 돌볼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은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돌봄과 독서·숙제지도, 놀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경희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는 군인 자녀 돌봄지원을 비롯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이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 5월 3일 개막

오는 5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개최...도자기와 문화예술·관광 결합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를 오는 5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개최한다.

여주 신륵사 관광지 일대에서 열리는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 스승의날을 기념하여 특별방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먼저 5월 3일 개막식에서는 미스터트롯'영기', 미스트롯'정다경','홍지윤'과 여주홍보 대사 '테이', '신델라'의 축하 공연과 함께 드론쇼와 불꽃놀이로 축제 개막을 알릴 예정이며,

5월 4일은 작년에 이어 다시 찾아온 EBS'펭수'와 트로트 부르는 개구리'탑골스타 개청이'가 재미를 줄 예정이며, KBS1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함께한다.

5월 6일, 5월 11일은 어린이를 위한 EBS'모여라 딩동댕', '한글용사 아이야'로 재미와 교육이 있는 공개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방청권 신청은 4월 17일부터 EBS 홈페이지 해당 프로그램 공개방송 참여 신청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5월 12일 EBS'최태성·서경석의 The K-로드(가제)'공개방송에서는 여주와 세종대왕을 조명해 여주시와 세종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축제 기간 내 설치되는 약 600평 규모의 도자기 돔 판매장에서는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여주도자기 80여개 업체가 생활자기부터 예술작품까지 여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도자기 상품 및 작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도자기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청년 도예인들이 꾸미는 '청년도자의 거리', 전통방식으로 도자기 굽기를 재현하는'전통장작가마'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자기 관련 체험이 준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바가지요금을 미리 방지하고 다양한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과 메뉴를 기반으로 선정한 먹거리와 공연을 보며 간단히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을 운영해 퇴근 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주도자기축제'를 준비했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올해 도자기축제는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실상부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할 것"이라며"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방세환 광주시장, 남성현 산림청장과 산불 진화임도 사업지 현장 점검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11일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 광주시에 조성된 산불 진화임도 현장 및 고성능 산불진화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임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퇴촌면 도수리 국유림에 조성된 산불 진화 임도는 산불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6km 구간에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3.8km 구간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2.22km 구간을 추가 완료할 예정이다.

산불 진화 임도는 진화 헬기 투입될 수 없는 야간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시설을 갖춰 임도 설치 유무에 따라 진화 효율을 5배가량 높일 수 있다.

또한, 임도 일대 국유림 230ha에 대한 산림자원 순환 경영뿐만 아니라 생활권 주변에 설치된 순환형 임도로 트레킹, 산악자전거 등 산악레포츠 활동이 가능한 테마 임도로써 활용이 기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에 개설되는 임도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 임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적극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시, 인사운영 3대 혁신방안 발표 이후 첫 사례

수원시가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행정혁신에 앞장서는 등 시정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들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지난 2일 발표한 인사 운영 3대 혁신 방안 중 하나인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실행한 첫 특별승진이자 파격 인사다.

특별승진 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 후보자명부 배수 등 일반 심사승진의 요건을 탈피해 시정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수원시는 '2023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을 받는 등 시민 중심 행정에 크게 기여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과 새빛톡톡 사업 담당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았다. 공적 사실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승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 제도로 관행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고질적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전국 최초 'K-행정'으로 언론의 큰 주목을 받는 등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7월 출시된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인근 지자체(의왕·안산시)뿐 아니라 핀란드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선도적인 행정혁신으로 주목받았다. 시민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별승진이라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향후 특별승진 제도를 다양한 직급과 직렬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보상으로 경직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공직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이번 특별승진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인사 운영 3대 혁신 방안'인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12일 경기도청에서 면담하고 "도의 산단심의권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이양해야 지방 발전한다" 강조

"경기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용인특례시로 이양해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용인이 훌륭한 반도체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라."

"광교택지지구 송전철탑 이설문제는 수원특례시 관할지역 사안이지만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지사님과 경기도가 각별한 관심으로 중재해서 적절한 해법이 도출되도록 도와주시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만나 용인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김 지사와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 평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Fab)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IT 인재들이 거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 평에 1만6000세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이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시스템반도체 용인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이 시장은 김 지사에게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승인권자인 용인특례시에 이양해야 용인이 국가산단 주변에 입주하길 원하는 각종 기업들을 신속하게 검증함과 동시에 입주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죽능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한 경기도 심의가 지연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앵커기업과 협력단지의 집적화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산업 생태계가 견고해지도록 경기도가 특례시인 용인에 산단 심의 권한을 이양해서 승인권자인 용인이 책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교택지지구 송전철탑 이설문제와 관련해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우려를 김 지사에게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시의 해당 아파트 주민 뜻대로 이설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용인특례시나 성복동 주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김 지사님과 경기도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도 전달했다.

이 시장은 또 "처인구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등 4개 노선 9개 구간을 확장·신설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는데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의 도로망 확충 계획 수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망 확충 사업의 신속 추진을 강조하고 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한 달여 만에 고기동 일대에 집중호우로 큰 수해가 발생하자 복구작업에 주력하면서 고기교의 상습 침수와 교통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와 협의했다.

이 시장은 2022년 9월 26일 김 지사, 신상진 성남시장과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선제 조건인 동막천 정비사업이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연으로 늦어지면서 고기교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와 교통영향분석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기로 하고 기존 고기교의 안전등급을 D에서 A로 올리는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기교에 인도도 설치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5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을 위한 경기도의 선행 절차인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고기교 침수를 예방하고, 용인특례시민과 성남시민이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도 50%, 시 50% 분담) 공모에 용인특례시 구성·마북 지역 6만1천m²를 역사 ·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신청했다며 김 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를 통해 "구성·마북 지역에 역사와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문화·축제 등을 주민들이 기획하고 체험해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모 결과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 시장에게 "주신 말씀과 자료를 잘 검토할 것이며 도로망 확충, 도시재생 등의 현안과 관련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성의있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상/기자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우리가, 바다》개막... 김철진 경기도의원 "예술 통해 재난의 상흔에 공감과 위로 됐으면"

김철진 도의원,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 참석해 예술을 통해 공감과 위로의 의미 담은 전시에 감사 인사 전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2일 열린 경기도미술관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우리가, 바다》개막행사에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김철진 의원은 추념전 개막행사를 주최한 전승보 미술관장과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년부터 예산확보와 준비과정에 동참한 추념전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에 기쁜 마음이 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경기도미술관 일대에서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추모문화제, 기억식 등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이다"라며 "추념전과 추모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참사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우리 사회에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미술관이 개최하는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는 4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94일간 열릴 예정이며, 회화·조각·영상·설치·사운드·사진·퍼포먼스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17인(팀)의 작가가 참여해 전시, 작가와의 대화, 작가 워크숍, 단체 교육 프로그램 등이 무료로 공개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관광 1번지' 경기도 매력 알리는 홍보 기획전 연다!

김정호 대표의원,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며 가치 뽐내는 축제 많이 찾아와주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관광 1번지' 경기도의 매력을 알리는 '2024 경기도 관광 홍보 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도내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31개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어딜 가도 구석구석 다채로운 여행지임을 확인시키고자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의 중요성과 천연의 생태자원을 경험해볼 수 있는 DMZ, 고귀한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남한산성.조선왕릉을 비롯해 바다와 호수, 명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고루 갖춘 관광특구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 삼아 경기도에서는 1년 내내 지역의 특성을 고루 담아낸 축제가 끊이지 않는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여주.광주왕실도자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등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며 가치를 뽐내는 축제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2024 경기도 관광 홍보 기획전'을 통해 소개될 28개 축제가 경기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며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관광 1번지'로서의 경기도 매력을 곳곳에 알리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검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검토'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렬) 정원 조정 관련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검토는 시설관리직 신규채용 미실시, 자연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정원·현원의 격차가 지속 증가하면서 해소 방안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시설관리직 정원은 도교육청(14명)·직속기관(47명)·교육지원청(469명)·각급학교(1,549명)를 합쳐 2,079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각급학교 정원 조정을 통해 371명을 감소시켜 결원·현원의 차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검토자료를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일선 학교에선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며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선 염려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에, 승진 등 여러 내용에 대해서도 노조 및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또 이와 별개로 올해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교부한 총액인건비(일반직·교육전문직원) 소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251억 늘어났으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필수인력·처우개선 등에 대한 비목일뿐더러 현 정부에서 인건비를 동결하는 기조로 가고 있어, 피치 못하게 공무원 수에도 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5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종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현재 14,950명에서 개정안에는 114명 줄어든 14,836명으로 조정된 상황"이라며 "상임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내용에 대해 다음 주에 진행되는 회의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복지위,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체험 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은 당사자 의견 반영과 현장의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의날(4. 20)을 맞아, 12일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동화책 녹음, 시각 장애 보행 체험 등을 실시하며, 장애인복지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이인규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정주 북부누림센터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장애 이해 체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 경기도의회는 58만 경기도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장애인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통합돌봄 등의 안정적 추진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업계 현안 해결 위한 간담회 주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와 함께 건설기계업계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청 관계자 및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여 업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문제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일산대교에서 발생하는 굴착기 과적 단속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자체 개발시스템 사용으로 제한 차량의 운행 허가가 가능한 반면,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이와 같은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과 안내 홍보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의 작성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시군 사무 위임 문제로 현장 조사가 소홀해진 상태인데, 현장 조사 및 정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논의된 주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복구 협약의 재체결 문제다. 협약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복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재협약을 통해 협의회의 자긍심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존 협약을 유지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에 대해 의원과 참석자들은 재협약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건설업계 내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현재 일부 대표적인 협회와만 체결된 '임금체불 예방 협약서'를 모든 관련 단체와 확대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욱 체계적인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건설기계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경기도와 건설기계업계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범상/기자

경북도, 저출생 극복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2024년 예산 13조 4,011억원, 기정예산 대비 7,933억원(6.3%) 증액
저출생 극복에 자체사업비의 31.7% 투자, 속도감 있는 사업화 지원

경상북도는 저출생을 국가소멸이 걸린 안보문제로 규정하고,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 7,93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월'저출생과의 전쟁'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북이 저출생 극복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재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극복 과제에 727억원(도비 54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도비 541억원은 법정.의무적 경비, 중앙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비(1,709억원)의 31.7%에 달하는 규모이다.

세부 사업별 추경예산은 완전돌봄 분야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지원 60억원,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52.2억원,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8.1억원 등, 안심주거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 201억원, 청년 및 신혼부부 월세 지원 84억원 등

일.생활균형분야는 육아기부모 단축근로시간 급여 보전 7억원, K공공기관형 돌봄 시범모델 구축 7억원 등, 양성평등은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3억원, 산모 미역국 밀키트 지원 2.8억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2.4억원 등, 기타 지원에는 농번기 돌봄 지원 4.4억원,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10억원, 소상공인육성 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 4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 안전한 도민생활 지원을 위해 하천재해 예방사업 147억원, 지방도사업 317.9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84.3억원, 경북형 재난대응체계(K-citizen first) 프로젝트 20.7억원 등을 편성, 시군조정교부금 1,557억원, 교육청전출금 1,104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도 추가 편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전 직원과의 끝장토론, 각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발굴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사업화하기 위하여 서둘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국가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킨 경북의 저력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일 최종 확정된다.

윤근수/기자

영천시, 주민자치 활성화 도 공모사업 6년 연속 선정!

최기문 영천시장,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로 자치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영천시는 지난 4일,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2024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7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2,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학습공동체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7개 시군이 선정됐다. 영천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19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금호읍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전시회(금호읍) ▲청통면 문화 한마당(청통면) ▲신녕면 신바람 축제(신녕면) ▲주민자치 소개서, 임고를 고(告)하다!(임고면) ▲우로지 동행(同行) 주민자치 어울림마당(동부동) ▲서부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서부동) ▲남부동 완귀정 주민자치 어울림 축제(남부동)로 총 7개이며 각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서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치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도서관정책 추진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내 집 앞 도서관', '문화정보플랫폼', 우수정책으로 인정받아

대구광역시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 등 총 40개 기관의 전년도 도서관 정책 및 실적을 대상으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이행 충실도,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이다.

대구광역시는 '내 집 앞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굴 및 운영, 공공도서관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 많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내 집 앞 도서관'은 도서관과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들이 도서관 방문 없이 책을 편하게 빌려 볼 수 있는 대구 특화 서비스로, 읽고 싶은 책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집 근처 생활편의시설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다.

현재 ▶이마트 반야월점 ▶CGV 연경점 ▶메가박스 이시아점 3곳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공공도서관 정보자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구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을 구축해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구 전역 도서 대출·반납 등 도서관 정보 서비스 이용은 물론,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모든 도서자료 통합검색 및 인근 도서관 도서 소장 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구 전역 공공도서관에 분산돼 서비스되고 있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정보를 시민들이 더욱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문화포털 사이트 '문화정보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별 도서관 이용 현황과 독서 성향을 분석,'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서비스'와 주제별 필요한 정보를 집어내는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해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김종찬 대학정책국장은"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구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박현국 봉화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주석수 연제구청장 지목 받아 기부 후 다음 주자로 조용익 부천시장 지목
박현국 봉화군수 "좋은 뜻을 가진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우리 고향도 살리고 자매도시 간 상생 · 협력 기초 되길 바래"

박현국 봉화군수가 12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박현국 봉화군수는 자매도시간 협력증진 및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부천시에 기부하고 다음 주자로 조용익 부천시장를 지목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이 시작한 기부릴레이로 전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좋은 뜻을 가진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우리 고향도 살리고 자매도시 간 상생과 협력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선일/기자

청송군, 도시재생주민대학(제4기) 수강생 모집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진보면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청송군 도시재생주민대학(제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시재생주민대학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을 탐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직접 사업계획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군은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도방식의 지역현안 분석과 사업 구상을 위한 도시재생주민대학의 참가자를 오는 4월 15일(월)부터 4월 19일(금)까지 5일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진보면 주민은 군청 농촌활력과 또는 청송군 농촌도시활성화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수강생 모집 후 도시재생주민대학(제4기)은 4월 넷째 주부터 8주간 진보문화체육센터 2층 회의실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도시재생주민대학을 통해 주민들의 도시재생 관심에 대한 제고와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며, "2025년 공모사업 신청의 기반이 될 이번 도시재생주민대학에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사장님, 우리가 또 왔어요"…영주시, 농번기 일손걱정 '뚝'
12일 필리핀 계절근로자 86명 네 번째 단체입국

총 241명 입국 완료, 영농현장 투입…농촌 일손부족 '단비'

경북 영주시는 지난 12일, 필리핀 로살레스시 계절근로자 86명이 올해 네 번째로 단체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E-8 체류자격으로 기본 5개월, 체류연장 시 최장 8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86명 중 지난해 고용주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아 다시 오게 된 '성실근로자'는 47명이다.

영주시에는 올해 지난달 7일 필리핀 로살레스시 67명, 13일 필리핀 마발라캇시 25명, 21일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52명 단체입국과 개별입국 11명에 이번 네 번째 단체입국까지 총 24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특히, 시는 필리핀 정부의 송출유예 조치에도 현재까지 필리핀 계절근로자 185명을 입국 성공시켜 자체적 대응 노력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입국설명회에서 고용주를 다시 만난 재입국 근로자 타이론(31세) 씨는 "정부의 송출유예 조치로 혹시나 사장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까 봐 무척 걱정했었다"며, "사장님, 우리가 왔으니 담배농사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필리핀 계절근로자 수급 문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송출유예 조치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예의주시하겠다"며, "로살레스시와 긴밀히 협력해 앞으로 필리핀 정부의 송출체계 관리 요구 강화에 즉시 대응해 농촌인력 수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제5회 영양군 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

오도창 영양군수, "이번 대회가 군 게이트볼 동호인들 모두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고, 게이트볼을 통해 올 한해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래"

영양군은 지난 12일, 영양군 입암면 선바위 관광지에서 제5회 영양군 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양군 게이트볼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여 입암면 선바위 잔디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영양군 6개 읍·면 게이트볼 동호인 130여 명이 참가하여 경기를 펼쳤다.

영양군은 매년 각종 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통해 영양군 대표 생활체육 종목으로써 게이트볼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게이트볼 시설 운영으로 영양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대회가 영양군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게이트볼을 통해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경상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 · 의결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경상북도 탄소중립 관련 첫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경상북도는 지난 11일,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실적 평가결과 심의를 위해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가졌다.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3.25. 시행)'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 첫 법정 계획이다.

이번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경상북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총배출량 대비 43.19% 감축', 최종목표는'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달성'을 설정했다.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5월부터 건물.수송.농축수산.흡수원.폐기물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을 토대로 마련됐다.

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시민단체, 도민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1월 31일(포항)과 2월 2일(구미) 양일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제3차 경상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에 따라 2023년도 이행실적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으며, 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50개 세부과제 중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사업에 반영해 추진한다.

한편, 경북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총 24명(당연직 7명,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안계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선정

김주수 의성군수,"**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추진 통해 지속 발전가능한 의성군이 돼도록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및 참여 부탁**"해

의성군은 지난 8일(월)부터오는 22일까지 안계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안계행복플랫폼 및 안계청년예술촌거리 활성화를 주제로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제안공모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안계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심 있는 의성군민 또는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공모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적합한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받을 예정이며, 22일까지 안계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사업접수 기간 중 사전설명회를 4월 15일(월)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홍보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의성군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재)영천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최기문 이사장, "2024년 장학생 선발 축하, 장학금 기탁해준 시민 여러분의 성원덕택"이라며 "장학생 선발된 자긍심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해 주길"

지난 11일 (재)영천시장학회는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및 연구비 수령 대상 학생 및 교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성적우수, 특기적성우수, 학업성취 우수교사, 다자녀 세대 자녀 면학장려 장학금 등 8개분야 7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으며, 이날 전달하지 못한 장학증서는 각 학교로 전달되어 개별 수여될 예정이다.

재)영천시장학회는 200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총 5,318명에게 8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달 28일에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올해의 장학사업으로 5개분야 18개사업에 대해 8억 8,540만 원을 의결했다. 832명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93명, 1억 5,813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코로나 이후, 2023년 여름부터 실시한 해외어학연수 사업은 상반기 겨울방학에 이어 여름방학에도 초·중·고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기문 이사장은 "2024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는 영천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시니어 통합 돌봄전문가 육성 지원사업 개강

지역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및 돌봄 전문성 강화

영덕군은 올해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영덕군가족센터에서'영덕형 시니어 통합 돌봄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개강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뤄지고 있으며, 영덕군은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을 통해 지난해까지 215명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취업박람회나 찾아가는 일자리 매칭 등으로 150명을 취업시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이끌고 있다.

올해 사업은 영덕군민 20명을 선발해 7월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시험에 전원 합격해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5일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복지치매전문가, 돌봄기관 노하우 공유회, 기관 네트워크 간담회, 선진 사회서비스 기관 탐방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태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니어 통합 돌봄 전문인력을 확충해 돌봄기관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해 지역 고유의 노인 돌봄 모델과 돌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울진군 제3회 매화 기미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식 개최

손병복 울진군수,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지역 선조들의 강한 의지와 정신이 후손에 이어져 화합된 새로운 희망울진 건설에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혀

울진군은 지난 11일, 매화면 소재 만세공원에서 제3회 매화 기미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화항일독립정신선양회(회장 남중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1919년 4월 11일 울진 독립운동사의 촉매가 된 매화 항일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손병복 군수, 임승필 군의회 의장, 유족대표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헌화·분향, 헌시·기미독립선언서 낭독 매화초·중학교 학생의 3.1절 노래, 만세삼창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남중수 매화항일독립정신선양회장은 "매화 기미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통해 지역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계승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지역 선조들의 강한 의지와 정신이 후손에게 이어져 화합된 새로운 희망울진 건설에 역량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상주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시행

청년 등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강영석 상주시장,"**이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신입직원, 직장 내 부적응 청년 등 사회 초년생들 성장통을 좀이나마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주시는 지난 11일, 청년센터'들락날락'및'상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입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지자체 조례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목표 인원의 30%까지 45세 이하 청년 선발 가능)이며 참여 청년은 4월부터 12월까지 16차시 수업에 참여해 경력(재)설계, 집단 심리상담, 니트 청년 일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지원 등에 관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 종사자들에게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청년들의 구직 단념 및 니트화는 지역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문제다"며 "본 사업을 통하여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신입직원, 직장 내 부적응 청년 등 사회 초년생들의 성장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예천군, 이동 KOTRA 상담회 개최 업체별 상담 지원

예천 농특산물 수출 확대 기대

예천군은 지난 11일 오후, 예천군청 영상회의실에서'이동KOTRA 상담회'를 개최하고, 예천군 농특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관련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군은 KOTRA 대구경북지원단을 통해 KOTRA 수출전문위원을 초청, 해외시장 정보, 바이어 발굴 방안과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에 나섰다.

이번 상담회에는 12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날 참여한 시골이야기푸드의 이재준 대표는 "그동안 수출에 어려움이 많아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동 KOTRA를 통해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출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수출을 시작하는 업체들은 바이어 확보와 해외시장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KOTRA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예천군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 확대를 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출 농가를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 품목을 만드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선일/기자

경북도,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거행

11일 '새벽으로 가는 길' 주제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려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 기리고, 대한민국 전통성과 민족자존 의식 확립

경상북도는 11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자존 의식 확립을 위해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신동보 안동시 부시장, 지역 도의원(김대일, 권광택, 김대진) 등 도내 주요 인사, 기관단체장과 보훈 단체장, 유가족,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 국권 회복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수립, 흩어져 있던 임시 정부를 통합하고, 독립을 쟁취한 1945년까지 27년간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

정부는 1989년부터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서 매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기념일로 제정했다.

* 1989. 12. 30. 기념식 지정(4.13.) → 2018. 11. 2.(4. 11.로 변경 지정)

경북도에서도 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광복회 경상북도지부 주관으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추모벽 참배 ▲기념공연 ▲약사보고 ▲기념사 ▲축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임시정부 수립 선열의 강인한 의지와 독립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근간이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순국선열과 유공자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섬김의 보훈 문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보건의료원, 매월'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

윤경희 군수, "앞으로도 임산부/가임·비가임 여성이 농촌지역에 살아도 불편함 줄이도록 맞춤형 이동 진료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많은 이용 바래".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임산부의 불편을 덜어주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안동의료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 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경상북도 내 산부인과 없는 분만취약지역인 5개 군(영양, 봉화, 성주, 고령, 청송)을 순회 방문하여 지역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마지막주 월요일마다 월 1회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임산부를 위한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며,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부인과 진료를 원하는 여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은 사전에 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해야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임산부 및 가임·비가임 여성이 농촌지역에 살아도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맞춤형 이동 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파노라마 대구'로 '대구여행 인생샷'남기세요!

ICT 기술을 접목한 셀피 체험존에서 원거리 사진 촬영
관광명소 4곳에서 '파노라마 대구' 인증샷 이벤트 진행(4. 15.~4. 26.)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작년 구·군 공모를 통해 대구 대표 관광지 4개소를 선정해 '파노라마 대구' 셀피 체험존을 설치했다.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으로 대구를 찾는 관광객 대상 방문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파노라마 대구' 사업은 대구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ICT 기술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 문화를 접할 기회와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당 사업의 기술을 통해 관광객은 원거리에서 관광지의 모습을 전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파노라마 대구' 셀피 체험존 이벤트는 봄꽃이 만개하는 4월을 맞아 체험존을 방문해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즐거운 모습을 촬영하고 필수해시태그(#파노라마대구, #셀피체험존, #비짓대구)와 함께 개인 SNS 계정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총 20명을 추첨해 치킨 혹은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관광 SNS 채널인 비짓대구(@visitdaegu)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노라마 대구' 셀피 체험존은 각 관광지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화면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면 원거리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다. 고화질 사진뿐만 아니라 짧은 영상을 만들어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대구의 '인생샷 명소'이기도 한 대명유수지(달서구), 수성못(수성구), 침산정(북구), 삼국유사테마파크(군위군)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파노라마 대구 셀피 체험을 통해 방문객들은 대구 여행지의 풍경을 담은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연계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영양군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쉼터 『싱글벙글기억교실』운영

영양군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환자 8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주2일 총 24회기 과정으로 치매환자쉼터 『싱글벙글기억교실』을 운영 중이다.

치매환자쉼터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전문적인 인지자극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여 치매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인지선별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전문 강사 초빙 운동, 미술, 공예활동 △로봇(피오)을 활용한 인지훈련 △컬러링북, 학습지 치매교구 등 다양한 인지활동이 제공된다. 또한 원거리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자 송영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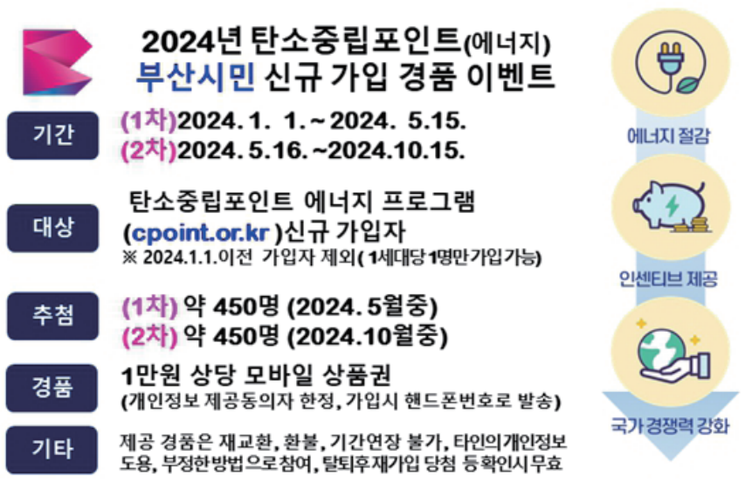
영양군치매안심센터는 현재 651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 중이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정보 및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쉼터 외에도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등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중이니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영양군치매안심센터로 문의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분야 신규 가입 이벤트 개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분야 신규 가입하면, 추첨 통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지급



부산시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분야에 신규 가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분야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별 사용량을 과거 1 부터 2년 중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축한 참여자에게 감축률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 또는 구.군 환경위생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분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성화(붐업)와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벤트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이벤트로 지난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규 가입한 시민 중 450명을 추첨해 5월 중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2차 이벤트로 5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규 가입한 시민 중 450명을 추첨해 10월 중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를 통해 3만3천 톤의 이산화탄소(CO_2)를 감축한 7만8천856세대에 9억5천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올해는 전년도 예산액(9억9천444만 원) 보다 약 17퍼센트(%) 증액된 11억6천6백만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시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 2월 기준으로 49만 세대가 넘는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는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우리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시민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분야에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문경시, 2024년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교육 실시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의 안전한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해 4월 15일, 16일 양일간 농업기술센터와 동로면행정복지센터에서 GAP인증 교육대상 농가 5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교육(GAP)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에서 수확, 포장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는 기준에 부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하며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뢰도가 해마다 높아져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들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교육은 GAP인증 및 관련 규정의 이해, 인증제도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신규 및 인증농가는 2년마다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교육포털사이트에서 GAP인증 교육이수도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김미자 소장은 "이번 교육이 농업인들의 GAP인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4월 23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경북자치경찰위원회, 3기 대학생 앰버서더 발대식 개최

대구 · 경북 대학생 58명, 경북자치경찰 홍보 및 치안정책 아이디어 제안 역할지난해 2기 앰버서더 54명, 홍보콘텐츠 205건 제작등 활발한 활동 수행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금) 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 앰버서더는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자치경찰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대학생들이 지역의 안전과 치안 수요를 조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북자치경찰 위원회 공식 홍보대사다.

대구·경북권 7개 대학의 23팀 58명으로 구성된 3기 앰버서더는 경찰행정 · 법학 · 심리학 · 통계학 · 군사학 · 간호학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9개월 동안 자치경찰제 홍보콘텐츠 제작과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홍보와 도민 현장소통 취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은 경북도청에서 ▲경북형 자치경찰 주요 정책안내 ▲위촉장 수여 ▲앰버서더 활동안내를 진행한 후 경북경찰청을 방문하여 ▲경찰홍보관 ▲시뮬레이션 사격장 ▲과학수사체험 ▲112치안종합상황실 방문 등 현장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경북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는 지난 2022년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최초로 시작한 대학생 홍보대사다.

작년 2기 앰버서더는 대구 · 경북권 대학생 54명이 활동하며 경북자치경찰을 알리는 205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소셜미디어로 홍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은 "대학생 앰버서더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민의 치안수요에 귀 기울이고, 경북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군위군 의흥면 여성자원봉사대, 반찬나눔 봉사

정성듬뿍, 사랑가득 건강한 반찬나눔

의흥면 여성자원봉사대는 지난 11일 독거노인, 장애인 등 9가구에 지난달에 이어 정성을 듬뿍 담은 반찬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웃사랑과 자원봉사 정신으로 마음을 모은 의흥면 여성자원봉사대는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농사일을 끝내고 오후에 행정복지센터 조리실에 모여 건강한 국과 반찬을 만들어 해당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손숙희 의흥면장은 매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건강한 반찬나눔 봉사를 하는 의흥면 여성자원봉사대의 한결같은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김동현/기자

경북 대표 우수 강소기업, 저출생과의 전쟁 자금 기부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 저출생 극복 성금 2,000만원 전달

배선봉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 회장(산동금속공업(주) 대표) 및 한승윤 이사((주)삼한씨원 대표), 허연옥 회원((주)포머스 대표)은 지난 11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손병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북 PRIDE기업 CEO협회는 경북 PRIDE기업의 글로벌 명품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PRIDE 기업을 회원사로 2011년에 설립됐다. 경북 PRIDE기업은 경북의 우수 강소기업으로 2007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93개 사가 있다.

배선봉 경북 PRIDE기업 CEO협회장은"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협회의 뜻을 모았으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PRIDE기업 CEO협회는 코로나 19, 호우피해 복구 등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금을 기부해 왔다.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공감대 조성과 동참을 위해'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 원 이상 기부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금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민선 8기 시민 소통·공감의 날'

이강덕 포항시장, 주민 건의 사항 보고회 실시

이강덕 포항시장, "시민 의견 귀 기울여 건의 사항 꼼꼼히 챙기겠다"

포항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민선8기 시민 소통 공감의 날' 주민 건의 사항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진행된 동해면, 우창동, 효곡동, 두호동 등 4개 지역의 시민 소통·공감의 날 행사에서 이강덕 시장이 시민에게 직접 들은 건의 사항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서 간 협업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항국제컨벤션센터 설립, 추 모 공원 건립 등을 비롯해 도시계획도로 조기 준공, 주차장 증설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단기간 해결이 가능하거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사업비 확보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부서 및 읍·면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일상생활에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반영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청도군, 저출생극복 '온국민이 함께하는 만원(이상) 기부 운동' 동참

청도군은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에 발맞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 중인 저출생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온 국민 공감대 조성과 동참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하는 만원(이상) 기부 운동'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청도군 주민복지과는 지난 9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일원에서 저출생극복 캠페인 '온국민이 함께하는 만원(이상) 기부 운동' 홍보를 진행했고, 이와 더불어 청도군 공직자들은 솔선하여 기부 확산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자발적인 기부 행렬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모금된 성금은 저출생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일반군민, 단체, 기업 등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도군민은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현/기자

울릉군, 제22회 오징어축제 개최 일정 확정

남한권 울릉군수,"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연, 체험행사, 각종 볼거리를 내실 있게 마련해 축제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

울릉군 대표 여름 축제인 '제22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저동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울릉군 축제위원회는 11일 울릉도 오징어축제 개최시기와 장소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오징어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울릉도 오징어축제는 2024~2025년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돼 올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알차게 준비할 계획이다.

김수한 축제위원장은 "지난해 개선사항을 반영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남한권 울릉군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연, 체험행사, 각종 볼거리를 내실 있게 마련해 오징어축제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강제/기자

'예천교육지원청, 청렴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2024학년도 영양(교)사 학교급식 업무 협의회 실시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목), 예천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 초, 중, 고 영양(교)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학교급식 업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급식의 운영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학교급식 기본방향 주요 사항 ▲학교급식 분야 청렴 교육 및 청렴도 향상 방안 ▲학교급식식중독 예방관리 ▲학교급식 대체 전담인력 운영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여러 가지 급식 관련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경 교육지원과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영양(교)사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선일/기자

경북도, 지방세 체납 절반으로 뚝! 확 줄인다!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
체납자 재산 압류 매각 등 신속한 환가절차 이행, 관허사업제한도 추진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이번달 15일부터 6월 28일 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한다. 우선 경북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해 체납자를 지속해서 압박한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첫 번째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도 실시한다.

한편, 실직 및 부도.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박시홍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악화와 조세형평성의 저하 등을 야기하는 만큼 신속한 자진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 유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남도, 세계 최초 제조특화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착수

경상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가 주관하는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227억 원(국비 150, 경남도 20, 창원시 45, 민간 12)을 투입해, 제조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과 응용서비스 2종*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도내 기업인 KG모빌리티와 신성델타테크에 적용한다. 경남테크노파크(사업수행 주관)와 카이스트(KAIST), 경남대 등 총 15개 기관과 디지털 공급업체가 참여한다.

① 품질관리(불량 예측, 수명 예측 등) 서비스 개발 ⇨ KG모빌리티 실증

② 생산공정(수요 예측, 자재 파악, 자동 발주 등) 서비스 ⇨ 신성델타테크 실증

'초거대(생성형) AI'는 수요기업(KG모빌리티, 신성델타테크)의 제조 데이터를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여, 품질관리와 생산공정의 최적 상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 수요기업에 적용한다. 이는 카이스트를 주축으로 지난해 12월 경남대에 개소한 '초거대 제조AI 글로벌 공동 연구센터(KAIST-메가존클라우드-경남대-경남TP)'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제조특화 초거대 AI 모델과 응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면, 공정처리 시간 65% 단축, 설비점검 시간 80% 단축, 자재관리 비용 10% 절감 등의 효과와 함께 제조업에 초거대 AI가 적용된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하여 이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창원국가산단이 초거대 AI를 제조업에 세계 최초로 적용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제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내 디지털 공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퇴계의 길 미래를 잇다' 제5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개최

권기창 안동시장,"퇴계선생이 귀향후 서원을 만들고 유능한 인재 양성해,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 번영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처럼 퇴계 정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혀

안동시는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과 더불어 오는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14일간의 여정으로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는 4월 12일 서울 경복궁 사정전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산서원에 이르는 700리 길을 걸으며, 어린 선조임금의 간청에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그토록 원하던 고향인 안동 도산으로 마지막 귀향을 떠난 퇴계선생의 겸손과 배려의 정신과 물러남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선비정신의

참모습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개막식에는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의 내빈뿐만 아니라 4개국 주한대사와 교황청 주한대사 등 국내외 재현단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해, 도산십이곡 합창을 시작으로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전달하고 퇴계선생과 임금의 마지막 대화를 재구성한 연극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귀향길 재현단은 일반인과 학생을 합쳐 총 80여 명으로 구성돼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운 참가자로 이뤄졌으며, 각종 단체에서도 동참해 귀향길 여정을 통해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배움과 실천이 시작되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나며 충주관아공원, 청풍한벽루, 영주 이산서원에서는 소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19일 충주관아에서는 퇴계와 송당의 증별시 창수, 20일 청풍한벽루에서는 퇴계와 서애의 한벽루 시 창수, 23일 이산서원에서는 '영주와 퇴계선생', '이산서원과 퇴계문인들'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지역별 행사를 통해 지역민이 동참해 퇴계귀향길을 한국의 대표적인 순례길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도산서원 상덕사에서 고유제를 거행하고 산매증답 시창, 도산십이곡 합창 등으로 14일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퇴계선생이 귀향해후 서원을 만들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유능한 인재들 양성해,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 번영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처럼 퇴계의 정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가겠다"라며"'퇴계의 길 미래를 잇다'라는 슬로건처럼 귀향길을 걸으며 안동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우리 강산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걷는 즐거움과 인문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 길의 가치를 알고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원불교 금정교당·부산원광신협, 김치 80박스 기탁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은 지난 11일, 원불교 금정교당(주임교무 이호연)과 부산원광신협

(이사장 박시윤)에서 원불교 대각개교절(4.28.)을 맞아 김치 8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원불교 금정교당과 부산원광신협은 지역주민을 위해 정기적으로 김치, 이불 등 다양한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하여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된 김치는 지역 내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허은숙 장전2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에 감사드린다"라며, "기부해 주신 성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남해군·거창군 선정

방문객에게 특별한 체험과 휴식 제공,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모에 남해군과 거창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지역의 농촌체험마을협의회·문화재단·사회적기업 등과 민간여행사가 협력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창조적인 관광 활동이다. 개인의 특별한 경험 선호 등 다양해지는 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전국 20곳 중 경남에서는 남해군과 거창군 2곳이 선정됐다. 개소당 2억 5천만 원(국비 1억 2천5백만 원, 지방비 7천5백만 원, 자부담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두 지역의 (사)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민간여행사와 협약해 농촌특화 테마 상품의 개발부터 홍보와 운영 모두를 하게 된다.

남해군은 '보물섬 남해 탐구생활'이라는 주제로 농촌체험휴양마을 8곳과 보물섬 마늘한우축제.독일마을 맥주축제 등 지역대표 축제와 보리암, 해수욕장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댕댕이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편", 독일맥주축제 "축제편"의 상품을 구성했으며, 소규모형, 단체형, 당일, 1박 2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거창하게 노는법-신비한 웰니스 거창'이라는 주제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4곳과 거창국제연극제, 감악산꽃별여행축제 등 대표 축제 8개와 항노화힐링랜드, 감악산, 가조온천 등의 관광 자원과 결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농촌체험관광을 대표 관광지와 연계해 웰니스 중심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허브테라피&온천힐링 여행', '시간을 거슬러 피부미인 여행', '거창한 축제 탐방' 등의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을 지역의 관광자원, 축제와 결합해 농촌으로의 여행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이 그냥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머물고 싶은 곳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경주시,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위한 '시민이 만드는 안전도시 경주' 캠페인 나서

황남동자율방범대,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곳곳 순찰

경주시 공무원들이 자율방범대와 함께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경주시는 총무새마을과 공무원들이 황남동자율방범대 대원들과 함께 지난 11일 황리단길과 대릉원에서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및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의지를 재결집하고 민주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공무원들과 방범대원들이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유치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치안공백 없는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취약지역 순찰, 교통질서 계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주섭 경주시 총무새마을과장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주시 총무새마을과는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타용/기자

전남도,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 온 힘

12일 순천·여수 일원 현장 방문해 역량 강화 교육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12일 사회적경제 정책과 제도를 알리는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순천과 여수 일원에서 실시하는 등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전남에서 선정된 청년 활동가, 시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사회적경제의 전반적 이해 및 지원 정책을 알리는 이론 교육과 우수 사회적기업인 ㈜쿠키아, ㈜달다쿠,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등 현장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전남의 사회적경제를 이끌 우수 청년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시켜 지방소멸을 막고, 나아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2억 6천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13명, 올해 4월 기준 20명의 청년 활동가를 양성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예비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 분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활동가 양성 목표를 22명까지 늘리고, 활동비를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당 1만 1천730원으로 인상했으며, 활동 분야를 사회적경제 행사 지원 및 현장체험, 기업 행정지원, 주민 교육 등 사회적경제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활동가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해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가·시군 간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도·시군 성과공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남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하도록 청년 활동가의 많은 활약 바란다"며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아내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함평나비대축제, 1회용품 없는 행사 만든다

전남 함평군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해 행사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없애고 다회용기만을 사용한다.

다회용기의 사용처는 축제장내 모든 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 푸드트럭 및 세계음식판매점 등 식·음료 판매소가 대상이 된다.

친환경적인 다회용기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공되며 보건소 위생팀과 협력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축제 기간 중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다회용기 사용 후 행사장에 설치된 수거함에 직접 반환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방문객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나비대축제는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리며 대표 나비 산호랑나비를 비롯해 17종 20여만 마리의 나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진/기자

남원시, 스프링피크 맞아 자살 사망 예방 집중관리 총력

"심각한 자살문제, 지자체부터 팔 걷어부친다"

자살률 1위라는 '자살공화국' 오명을 쓴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남원시가 봄철 자살 고위험시기(스프링피크)를 맞이하여 자살 사망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살예방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봄철 자살 고위험시기(스프링피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수치가 온도와 일조량 등에 반응하는데 날씨 변화가 심한 3 부터 5월 봄철에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자살 고위험시기 자살사고를 예방하고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남원시보건소와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살펴본다.

자살 고위험시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남원시의 자살 사망률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10만명당 29.3명으로 전국 25.2명, 전북 26.1명보다 높아 자살예방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남원시는 자살 고위험시기(스프링 피크)에 자살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봄철 자살 고위험시기(스프링피크)를 기점으로 관내 전통시장 4개소(8회)/요천변/경찰서·소방서 등 여러 곳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부하고, 농약 음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농약 사용과 보관법도 안내하고 있다.

자살수단을 통제하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추락예방사업

특히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자살시도를 방지할 목적으로 남원시는 다양한 자살수단 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농약안전보관함의 경우 현재까지 828개를 보급·관리 중이며, 5월 이후 농약음독 자살시도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 100여 개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19년 6월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생명사랑 실천가게'을 통해 관내 46개 슈퍼마켓에서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도를 확인 후 판매하고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3년에는 남원대교를 비롯한 요천 주변 다리 3개소에 자살방지 안내문구를 부착하여 자살 고위험군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 사고를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남원시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생명존중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취학 전 어린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자살예방교육△원예요법△미술요법△감정오일 아로마 테라피 등의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출산 전·후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여 산전·후 우울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023년에는 남원시 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중·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공모사업 '생명愛찬'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바있다.

자살예방사업 '생명愛찬'은 1000명 이상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여 스트레스 고위험군 281명을 상담 등록 관리하였고 98명의 우울증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 관리중이다.

마음 아픔도 치유합니다- 심리 회복지원 및 무인 정신건강검진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책도 다채롭게 운영 중이다.

실제로 남원시는 3월 부터 4월 중 '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지역주민의 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4개 마을을 방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2개 마을에 대해서는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하여 안정화 프로그램과 용품을 지원했다.

이밖에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남원시청과 의료원에 설치, 누구나 상시 우울증,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자가 검사를 할 수 있고, 본인 동의 시 정신건강검진센터로 연계, 센터에서 정신건강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상담(마음건강주치의)과 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신규사업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운영' 통해 자살 감소 기여

한편 남원시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 통합적으로 자살예방에 자살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남원시 자살 감소에 기여하고자 2024년부터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운영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읍면동 신청을 받아 선정된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6개 영역기관(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등)이 참여하여 △고위험군 발굴△개입△ 연계△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5개 활동 펼친다. * 송동면, 금지면, 대강면, 사매면, 보절면, 산내면, 향교동

6개 영역기관은 총 51개 기관이 함께하며 기관에서는 방문객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고, 기관 내 정신건강 홍보물을 비치 및 자살예방의날 캠페인을 동참과 생명지킴이 교육도 진행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렇게 우리 남원시에서는 촘촘하게 자살예방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지자체의 매우 중요한 책임과 의무이기에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순천시 14만 어린이의 꿈을 품은 '스페이스 브릿지', 순천 랜드마크로 급부상

기존 꿈의다리 작품을 디지털로 변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호평받아

순천시 '스페이스 브릿지'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7일만에 관람객 21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꿈의다리를 리뉴얼한 '스페이스 브릿지'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기존에 설치됐던 강익중 작가의 '꿈의다리'는 컨테이너박스를 재활용한 작품으로,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누수, 탈각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또한 지속적인 야외 노출로 색바램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작품성 훼손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적 형태로 존재하는 14만여 점의 작품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스페이스 브릿지' 내부에 기존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당시 작품에 참여했던 관람객들에게는 본인의 작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10년 전 14만 명 아이들의 꿈 작품을 찾아보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스페이스 브릿지'가 호평을 받는 이유는 '꿈의다리'의 작품성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작품 훼손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브릿지'라는 명칭처럼 아이들의 꿈이 우주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날로그적 요소는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더했다"며, "지난해 순천을 찾아오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오시더라도 확 달라진 국가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연중 운영될 예정이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휴장한다.

이승준/기자

강진군, 질병관리청 주관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16일~19일, 강진읍 이에스아뜨리움아파트 25가구 대상

강진군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강진읍 이에스아뜨리움아파트 주민 25가구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주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영양 상태에 대한 전국 단위의 조사로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천7백 가구를 표본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 보건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으로 강진군에서는 강진읍 이에스아뜨리움아파트 101동과 103동의 25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됐다.

해당 주민들은 조사 기간 중 아파트 인근 공터에 마련된 이동검진 차량 2대에서 신체 계측, 혈액·소변·구강검사, 설문조사 등을 받게 되며, 조사 후에는 비만·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개인의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국가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 단계인 만큼,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향후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나주시 "여러분~ 독서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세요"

빛가람시립도서관, 나주시립도서관 총 13개 행사 풍성

나주시 시립도서관 두 곳이 12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제60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빛가람시립도서관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체험수업부터, 베매산 생태탐사, 호수공원 자연체험, 도서관 견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 이용자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그림책 '버찌 잼 토스트'의 원화들과 지난 겨울방학 추진했던 '책과 함께 우리그림 그리기'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영산동에 위치한 나주시립도서관에서도 '동화구연지도사 초급 과정', 초등학생 대상 '그림책놀이', 유아들의 도서관 견학, 우드 캐리어박스 만들기 체험과 같은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양 시립도서관은 대출도서 반납 기한을 놓친 도서관 이용자들이 연체도서를 반납하고 다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도서연체자 해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지난해 과월호 잡지를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나누어 봄' 행사도 운영한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님들께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은 빛가람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거나 나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안/기자

NAJU

전북도, "책 읽기 좋은 계절, 도서관으로 오세요!"

도서관의 날(4월12일) 및 도서관 주간(4월12일~18일) 맞아 도내 공공도서관 다채로운 문화·체험프로그램 열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2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지자체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날(4월12일)과 도서관 주간(4월12일~18일)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도서관의 날은 지난해 정부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도서관 주간은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64년 시작한 이후 올해로 60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각 공공도서관에서 각종 공연, 특강,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그중 전북자치도청 도서관 '과월호 정기간행물 나누기', 전주시 도서관 '플루리스트 연주회', 익산시 도서관 '명사 초청 특강' 등이 눈에 띈다.

이번 도서관 주간 행사와 프로그램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 SNS 등 미디어 확산으로 1년에 책 1권을 익은 성인 비율이 47.5%에 그치는 등 독서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그간 도민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편익 제공을 위해 문체부, 시군과 협업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왔다.

도서관의 특성상 생활 동선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 접근성 향상과 도서관을 찾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대출·반납이 가능한 책이음서비스, 스마트도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주간, 문화가 있는 날 등에 도서관 문화행사를 주기적으로 열어 '오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문화공원 일원에 전북대표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특히 전주시가 도서관 여행프로그램 운영, 책사랑포인트 '책쿵20', 유럽풍 분위기의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 개관 등 집중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대표 '책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도내 공공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도서관 문화 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5월 중에 지역 공공도서관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향후 수준 높은 도서관 문화서비스가 균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보성군, 푸른 찻잎과 함께 열리는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족이 함께 참여한 풍성한 축제의 장 마련

보성군이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 한국차문화공원 주무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에 열리며 (사)보성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사진 만들기, 풍선아트 등 체험마당과 왕발 릴레이, 협동 공 튀기기 등 놀이마당, 녹차 빙수·달고나 만들기, 팝콘 만들기 등 먹거리 부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도전골든벨' 이벤트가 있다.

보성의 대표 특산품인 차(茶)와 보성 키위 등을 활용한 차밭 보물찾기, 녹차 비누 만들기, 찻그릇.접시 만들기, 키위 젤리·초콜릿 만들기 등 보성다향대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체험공간(체험존)도 상설 운영된다.

특히, '도전골든벨'은 초등학생 1명을 포함해 2인 1조로 퀴즈에 참가할 수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전골든벨 사전 신청은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보성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80팀까지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5월 5일 10시 30분까지 운영 부스에서 20팀까지 가능하다.

도전골든벨에 참여한 어린이 중 1등은 10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2등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3등은 30만 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등이 주어진다.

풍성한 어린이날을 위해 관내 청소년

공연팀, 마술·버블팀의 무대가 펼쳐지며,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경품추첨도 진행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아이들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미래의 희망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즐거운 놀이의 장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보성다향대축제를 비롯해 △보성군민의날,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녹차마라톤대회, △전국요트대회, △데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

최원영/기자

진도군, 제1회 보배섬 유채꽃 마을축제 개최

관매도, 군내농공단지, 귀성마을, 남도진성 등 10개소

진도군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1회 보배섬 유채꽃 마을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조도면 관매도에 7만 5,000여 평 대단지의 유채꽃밭을 포함해 군내농공단지, 송군삼거리, 귀성마을, 남도진성 등 마을 10개소에 만개한 유채단지를 조성했다.

긴 겨울과 유난히 잦았던 봄 장마를 이겨내고 활짝 핀 유채꽃으로 조도 관매도를 포함한 마을 곳곳이 노란물결로 일렁이고 있다.

축제장 곳곳을 찾을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4곳 이상 방문하고 도장을 받으면 진도 특산물을 지급하는 도장이어찍기, 말타기체험, 얼굴에 그림그리기, 보물찾기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를 준비했다.

행사 첫날인 12일은 유채와 진도를 주제로 그림과 글짓기 대회인 초등학생 사생대회를 현장에서 진행하고 둘째날인 13일은 코스별 자전거 대회와 유채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가족건강 걷기 축제를 실시한다.

또한 군내농공단지, 송군삼거리, 연주마을 귀성마을, 관매도 등의 행사장은 해당 부녀회가 주막을 운영해 유채꽃 튀김, 파전, 막걸리 등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관매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13일과 14일 양일간은 관매도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여객선을 오후 5시로 증편 운항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예쁜 유채꽃과 함께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봄의 정취 만끽하며 진도에서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완도군, '황칠 약주' 대한민국 주류 대상서 '대상' 수상

완도 특산품 황칠나무 안식향과 자가 누룩 향 어우러진 고급 약주

전남 완도군은 관내 주류 업체인 고금주조장에서 만든 '장보고의 꿈, 황칠 약주'가 '2024 대한민국 주류 대상'의 우리 술 약주, 청주 전통 주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주류 대상'은 2014년부터 조선비즈에서 개최하는 주류 품평회로 전문 주류 시음단의 심사를 통해 주종별 최고의 술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18개 업체, 총 1,061개 브랜드가 참가했다.

'장보고의 꿈, 황칠 약주'는 국내산 유기농 통밀을 빻아 손수 만든 누룩과 완도 쌀을 세 번 발효시킨 삼양주로 특히 완도 특산품인 황칠나무의 안식향과 자가 누룩의 향이 어우러진 고급 약주이다.

고금주조장 배준현 대표는 "완도 쌀과 황칠나무를 활용한 전통주 제조로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 이번 수상이 더욱 뜻깊다"면서 "황칠 약주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금주조장은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지역 향토기업이다.

100년 기업을 목표로 '장보고의 꿈 황칠 약주' 외에도 '장보고의 꿈 비파', '유자 막걸리' 등 약주뿐만 아니라 탁주 등 다양한 술을 생산 중이다.

박창희 농업축산과장은 "앞으로 전통주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영율/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도서관 육성·발전' 문체부 장관상 수상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구축 독서 활성화

광주 남구가 관내 주민들의 정보 접근 해소와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서관 육성·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유관 분야 인사 등 2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도서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 및 이용 촉진에 이바지한 행정기관과 유공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도서관 분야 정책 추진력 향상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분야와 도서관 정책 혁신·발전,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공공도서관 건립, 개관시간 연장 등 6개 분야의 우수 행정기관과 유공자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특히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도서관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뒤 공적 자료를 심사해 포상 수상기관 및 유공자를 선발하고 있다.

기념식에서 장관상을 받은 행정기관은 남구를 포함해 전국 3곳이며, 유공자는 18명이다.

남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분야에서 포상 기관의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공립 작은도서관 6곳을 조성하고, 3곳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 동네마다 촘촘한 독서 기반 시설을 구축한 공로였다.

또 전국 최초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관내 직영 작은도서관 10곳 전체의 운영시간을 평일 야간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문을 개방해 평소 공공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직장인 및 학생 등에게도 도서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한 부분도 호평받았다.

이밖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관내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까지 도모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도서관과 함께하는 주민들의 삶 또한 더욱 윤택하게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목포시, 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학생체전 운영위원회 성공 다짐

5월 체전에 앞서 관내 대표 기관·단체장 110여명과 성공다짐 대회 개최

목포시가 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학생체전의 운영 성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2일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목포가 주 개최지가 되어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앞두고 체전 운영위원회 성공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목포 기관·단체장 등 110여명이 참석해 식전 축하공연,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추진경과 보고, 성공다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체전 운영위원회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위원장으로 주요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3월 구성됐으며, 2025년 전국생활대축전이 종료될 때까지 협력체계 구축과 대회 준비를 위한 자문과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3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이어 2024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스포츠 선진도시 목포의 이미지를 더욱 끌어 올리겠다"며, "각급 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17개 종목, 3,500여 명이 참가하고,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은 오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6개 종목 18,000여 명의 선수들과 임원진이 참가해 전남 지역 전역에서 기량을 펼치는 전국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다.

박종배/기자

신안군 '2024 섬 수선화 축제' 성공 개최... 2백만 송이 수선화는 4월 말까지 개화

234명 사는 작은 섬에 인구수 72배에 달하는 1만 7천여 명이 다녀가

신안군은 선도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17일간 열린 '2024 섬 수선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나의 사랑 수선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신안군의 첫 꽃축제다. 섬 지역의 특성상 바다 날씨에 민감한 만큼 하늘의 운이 따라야 갈 수 있는 불편한 교통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주민 234명이 사는 작은 섬 인구의 72배에 달하는 1만 7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수선화 단일 재배면적(13.4ha)으로는 최대를 자랑하는 '수선화 섬 선도'는 수선화정원, 수선화재배단지, 수선화의 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관이 펼쳐진다.', '특별한 경험이다.' 등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신안군은 아직 지지 않은 수선화의 여운을 담고 있는 선도에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해 4월 30일까지 여객선을 증편연장 운행하며, 여행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작은 섬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감격스럽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선화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년 선도에 방문하시어 수선화 향과 함께 봄을 만끽하는 치유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강원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권역별 주민공청회 개최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 주민 의견 청취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은 향후 10년의 미래상 구현을 위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해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공청회는 내륙북부권, 내륙남부권, 동해안권 총 3개의 권역별로 나눠, 춘천, 원주, 강릉에서 각각 4. 12, 4. 15, 4. 17 14:00에 총 3회 개최된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초안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청(정책기획관) 및 18개 시군 기획부서에서도 현장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기간은 4. 8부터 4. 18 까지 이다.

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도와 교육청 그리고 18개 시군이 함께 수립하고 있는 범도정 종합계획이며,『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선도도시(미래산업 매출액 20조원), 찾고 싶은 열린도시(국내외 방문인구 2.5억명), 살고 싶은 쾌적도시(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 전국 5위권 이내)의 3대 목표, 9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안)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주민공청회 이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종합계획 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보완된 종합계획은 강원특별법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의결, 도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오는 7월에서 9월 중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영미 정책기획관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향후 10년 도정 비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도 단위 최상위의 법정계획인 만큼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촉구

아산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기관장 주재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는 △국·소장 및 과장급 18명과 △시민감사관·공직자윤리위원회·공익신고위원회 외부 위원 9명, △반부패 전문기관 ㈜레드휘슬 연구원 등 총 28명이 참여해 지난 3월 실시한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용역보고회를 시작으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분석과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경귀 시장은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도출된 내부 청렴도 취약 항목의 원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반부패 청렴 추진단'과 외부 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주도했다.

또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의 공유와 비교·분석을 통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오늘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는 부패 취약 항목에 대한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의 부패취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개선 시책을 통해 청렴 체감도를 끌어올려 올해는 '아트밸리 클린 아산'에 걸맞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렴 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30여 청렴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독서 문화 진흥 위해 역할 다할 것"

제2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도내 도서관 직원 150여 명 한자리에

충남도서관은 12일 법정 기념일인 도서관의 날을 맞아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강당에서 제2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이경란 충남도서관장, 도내 공공도서관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기념 영상 상영, 도서관 선언문 낭독, 표창, 화합의 시간, 작가 초청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1부 행사에서는 도내 도서관 직원과 주민들이 참여한 도서관의 날 기념 영상을 함께 관람했으며, 도내 4개 공공도서관을 선정해 우수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 8명에게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이날 도서관 직원 및 관계 공무원들은 도서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2부 행사에선 화합의 시간을 마련해 현악 4중주단인 블레싱 앙상블이 클래식 공연을 펼쳤고 도서관 직원 간 소통하는 대화의 장도 열었다.

이어진 작가 초청 강연에선 '데드폴', '보헤미안 랩소디' 등 다양한 작품을 번역한 황석희 번역가가 '일상을 번역한다는 것'을 주제로 강연해 경험과 지식을 나눴다.

이 관장은 "이번 행사는 도서관의 날을 맞아 도내 도서관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라면서 "도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도내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서관은 도서관의 날과 제60회 도서관 주간(4.12.~4.18.)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강연, 공연, 전시 행사 등 다채로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충남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근/기자

태백 시립 및 산소드림도서관, '2024년 도서관 주간'운영

태백시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의 날'을 맞아 시립도서관과 산소드림도서관에서 '2024년 도서관 주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정됐으며, 매년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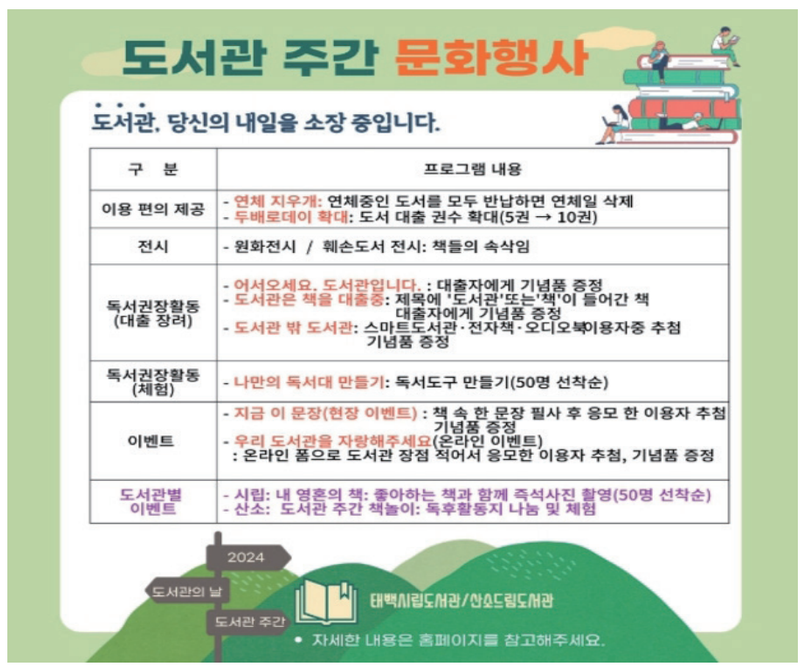
올해는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이라는 주제로, 도서관 방문을 위한 '어서오세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책을 대출 중', '도서관 밖 도서관'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며, 도서관·스마트도서관·전자책·오디오북 이용자들의 도서대여를 장려한다.

또한, 도서 대출 권수를 늘려주는 '두배로데이'와 도서자료 연체회원 대출 정지를 면제해주는 '연체지우개' 행사를 진행하며, '나만의 독서대'를 만드는 체험과, 책 속 문장을 필사하여 가슴에 담는 '지금 이 문장', 도서관의 긍정적 이미지 홍보를 위한 '우리 도서관을 자랑해주세요(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더불어,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가 좋아하는 책과 즉석사진 촬영을 해주는 '내 영혼의 책' 행사를, 산소드림도서관에서는 독후활동지를 나누고 체험하는 '도서관 주간 책놀이' 행사를 각각 운영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2024년 도서관 주간에 따라 운영하는 많은 행사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우즈베키스탄 방문

K-유학생 설명회 개최 등 우즈벡 유학생 유치 전방위 홍보 추진

충북도는 김영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청북도 대표단이 4.15~4.19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차례로 방문하여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표단은 도 관계자, 충청북도의회 김국기 의원과 유재목 의원, 중원대학교 황윤원 총장을 비롯한 3개 대학 관계자 및 충북화장품산업협회 김홍숙 회장 등 도내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연결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서, 러-우 사태에 따른 대러제재 영향으로 외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러시아 진출 우회지역으로 이용하면서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아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충북 특화 산업인 화장품·의료기기 분야 진출에 유망한 시장이다.

이번 방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충북도 주력사업인 K-유학생 제도의 전방위적 홍보를 전개하고, 수출상담회 개최와 우즈벡 투자산업통상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도내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마르칸트주와의 우호교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충북도와 사마르칸트주와는 '19년 충북경자청과 사마르칸트주 우르구트경제특구청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3년 6월에는 도내 병원이 사마르칸트주에 방문하여 의료설명회를 개최, 이어 11월에 사마르칸트주 의료관계자를 충북에 초청하여 팸투어를 시행하고 하나병원, 와인성형외과와 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부문에서 이미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16일, 도 대표단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우즈벡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들에게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소개하는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김 지사는 주우즈벡 한국대사관 및 우즈벡 투자산업통상부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K-유학생 유치, 수출길 확대 등 양 지역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슈켄트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리는 충북 수출상담회에도 참석해 무역사절단으로 참여한 도내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17일에는 고대 실크로드의 교차지로 동서 문화교류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주를 방문한다. 김 지사는 사마르칸트 투르디모프 주지사와 양지역 공동발전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K-유학생 유치, 경제통상, 문화·관광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사마르칸트주 최대 사립종합병원인 자메이드병원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코이카 직업훈련원에도 방문한다.

충북도는 이번 방문으로 유학생 유치, 해외 수출판로 확보지원, 해외교류 지역의 다변화 등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충북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서로를 구원할 장기용X천우희의 필연적 만남! 2차 티저 공개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 천우희가 서로를 구원할 필연적 만남을 갖는다.

오는 5월 4일(토) 첫 방송 예정인 JTBC 새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연출 조현탁, 극본 주화미, 크리에이터 글Line&강은경, 제작 글앤그림미디어·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SLL) 측은 12일, 복귀주(장기용 분)와 도다해(천우희 분)의 특별한 인연을 예고하는 2차 티저를 공개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남다른 능력을 지녔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했던 남자가 마침내 운명의 그녀를 구해내는 판타지 로맨스다. 세상 흔한 현대인의 고질병에 걸려 흔치 않은 능력을 잃어버린 초능력 가족과, 우연인 듯 운명처럼 얽히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유쾌한 웃음 속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앞선 1차 티저 영상이 비밀 많은 복씨 패밀리에 입성한 도다해의 모습으로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이날 공개된 2차 티저 영상은 복귀주와 도다해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도다해의 뒷모습을 따라 걷는 복귀주. 한걸음씩 거리를 좁히는 그의 생기 넘치는 얼굴이 흥미롭다. "지금 이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거 같거든. 행복한 시간으로"라는 내레이션과 달리 이어진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눈길을 끈다.

복귀주의 행복을 앗아갈 듯한 참혹한 교통사고와 화재 폭발 사고 현장이 의미심장하다. 아수라장이 된 화재 현장에 우두커니 선 복귀주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도 구하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그의 얼굴엔 깊은 절망이 담겨있다.

무엇보다도 복귀주와 도다해의 애틋한 눈맞춤에 더해진 "생애 가장 큰 행복과 불행이 뒤섞인 이상한 시간"이라는 내래이션은 두 사람의 필연적 만남을 더욱 궁금케 한다.

더는 어떤 시간도 행복하지 않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던 '시간 여행가' 복귀주의 무채색 현실에 유일하게 색을 입히며 나타난 '수상한 침입자' 도다해는 서로를 어떻게 구원할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한편,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SKY 캐슬'에서 독보적 연출을 선보이며 연출력을 인정받은 조현탁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연애 말고 결혼' 등을 통해 섬세하고 공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을 선보였던 주화미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낭만닥터 김사부' 등으로 대중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강은경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완성도를 높인다.

JTBC 새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는 오는 5월 4일(토)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졸업' 정려원X위하준, 눈맞춤부터 설레는 '두근두근' 캐릭터 포스터 공개 '확신의 멜로 장인'

tvN '졸업' 정려원, 위하준이 감성의 깊이 다른 현실 멜로를 완성한다.

오는 5월 11일(토)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졸업'(연출 안판석, 극본 박경화,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주)제이에스픽쳐스)측은 12일, 눈맞춤부터 설레는 서혜진(정려원 분)과 이준호(위하준 분)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tvN '졸업'은 스타 강사 서혜진과 신입 강사로 나타난 발칙한 제자 이준호의 설레고도 달콤한 미드나잇 로맨스를 그린다. 대치동에 밤이 내리면 찾아오는 로맨스는 물론, 미처 몰랐던 학원 강사들의 다채롭고 밀도 있는 이야기가 시청자들을 사로잡는다.

무엇보다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밀회' 등을 연출한 안판석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매 작품 수많은 멜로 수작들을 탄생시킨 그가 사제(師弟)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깨운다.

정려원은 14년 차 스타 강사 '서혜진'으로 분한다. 단단한 내공을 가진 그는 포기를 모르는 조용한 승부사다. 혼신의 힘을 다해 명문대에 보낸 '발칙한 제자' 이준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그의 현실에 예상 밖 경로 이탈을 가져온다.

10년 만에 돌아와 은사 서혜진의 마음을 휘젓는 신입 강사 '이준호'는 위하준이 맡았다. 탄탄대로가 보장된 대기업 사원증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안겨준 학원으로 돌아온 이준호. 그리고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은사 서혜진에게서 낯선 감정을 읽어버린 그는 발칙한 직진을 시작한다.

사제였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의 될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날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설렘을 한껏 끌어올린다.

자정이 지난 대치동 학원의 강의실, 학생들 모두가 자리를 뜨고 오직 서혜진과 이준호만이 남은 이곳에는 치열한 수업 현장과는 또 다른 텐션이 감돈다. 책상을 사이에 둔 채 자리한 두 사람이지만, 거리는 고작 한 뼘 남짓이다. 철두철미한 면모를 잠시 내려놓은 서혜진은 편하고도 나른한 자세로 이준호를 올려다보고 있다.

10년 만에 신입 강사가 되어 나타난 옛 제자 이준호를 바라보는 서혜진의 눈빛에 궁금증과 함께 왠지 모를 낯선 설렘도 묻어난다. 이어진 "이준호 선생님, 나 너 신경 쓰여"라는 서혜진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생의 스승이자 첫사랑인 서혜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준호의 눈빛도 흥미롭다. 서혜진의 시선을 오롯이 마주하는 그의 눈빛엔 애정이 한 가득이다. 여기에 더해진 "서혜진 선생님, 난 처음부터 너였어"라는 직진 고백은 심박수를 단숨에 끌어올린다.

10년이라는 시차를 뚫고 마침내 맞닿기 시작한 두 사람의 감정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어떤 파동을 만들어낼지, 대치동을 뒤흔들 미드나잇 로맨스에 이목이 집중된다.

tvN '졸업' 제작진은 "정려원, 위하준의 로맨스 케미스트리 기대해도 좋다. 순간의 눈빛, 대사 하나만으로 서혜진과 이준호의 서사와 감정선을 담아내는 시너지를 오롯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관계성을 세밀하게 그려낼 두 배우의 활약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tvN 새 토일드라마 '졸업'은 오는 5월 11일(토) 밤 9시 20분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범죄 액션 스릴러 '브링 힘 투 미', 4/19 개봉 확정! 메인 포스터 & 메인 예고편 공개!

한 순간도 하차할 수 없는 범죄 액션 스릴러 '브링 힘 투 미'가 4월 19일 개봉을 확정 짓고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감독: 루크 스파크 | 출연: 베리 페퍼, 제이미 코스타, 샘 닐 | 수입·배급: ㈜스튜디오 디에이치엘 | 개봉: 2024년 4월 19일]

영화 '브링 힘 투 미'는 임무를 막 마친 드라이버가 한 남자를 태워 자신에게 데려오라는 의문의 협박을 받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범죄 액션 영화.

'브링 힘 투 미'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등 할리우드 대표 제작진들이 의기투합한 스타일리시 심리 스릴러 액션으로, 2023년 CinéfestOZ 영화제에 공식 초청 된 바 있다.

또한, 제63회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수상자이자 국내에서는 '메이즈 러너' 시리즈의 빈스 역과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린 마일'로 잘 알려진 베리 페퍼가 위험한 운명으로 달려야만 하는 드라이버를 맡았으며, 제이미 코스타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승객으로 분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심리 게임을 펼치며 긴장감 넘치는 앙상블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어두운 도시의 밤을 배경으로, 드라이버 역의 베리 페퍼와 승객 역의 제이미 코스타는 물론, ACCTA상 남우주연상 수상자이자 '프랭크' 역을 맡은 샘 닐, 가면을 쓰고 상대를 위협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의 모습까지 한 데 담겨 있어 긴장감을 자아낸다.

여기에 '지옥 같은 운명으로 질주하다!'라는 카피가 더해져, 드라이버에게 맡겨진 의문의 임무에 숨겨진 정체가 대체 무엇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함께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강도 사건으로 시작, "내 돈을 훔쳐 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라는 샘 닐의 대사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후 보스의 의미심장한 협박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승객을 태워 그에게 데려가는 드라이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어쩌다 동행 하게 된 두 사람이 점차 돌이킬 수 없이 꼬여가게 되는 지독한 운명을 짐작케 한다.

믿음과 배신의 딜레마와 범죄 액션 사이를 질주하는 미친 전개로 짜릿함을 선사할 영화 '브링 힘 투 미'는 4월 19일 개봉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수사반장 1958' 첫 방송 D-7, 감독과 작가가 직접 밝힌 모든 것! 오리지널과 프리퀄의 차별점부터 배우들을 향한 극찬까지

'수사반장 1958'이 보다 새롭고 특별하게 돌아온다.

오는 19일(금)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은 야만의 시대, 소도둑 검거 전문 박영한(이제훈 분) 형사가 개성 넘치는 동료 3인방과 한 팀으로 뭉쳐 부패 권력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며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프로파일링도 그 흔한 CCTV도 없이 오로지 타고난 감각과 통찰력, 집요함으로 범죄를 해결하던 그때 그 시절. 아날로그 수사의 낭만과 유쾌함이 살아있는 레트로 범죄수사극이 젊은 세대에게는 색다른 카타르시스를, '박 반장'의 활약상을 추억하는 세대에게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영화 '공조' '창궐' 등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꼰대인턴' '검은태양'을 기획한 MBC 드라마 IP 개발팀이 발굴한 신예 김영신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여기에 드라마 '김과장' '열혈사제' '빈센조' 등을 집필한 박재범 작가까지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며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한국형 수사물의 역사를 쓴 '수사반장'이 프리퀄로 화려한 귀환을 예고한 가운데 첫 방송을 일주일 앞두고 김성훈 감독(이하 '김 감독'), 김영신 작가(이하 '김 작가'), 박재범 작가(이하 '박 작가')가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에 직접 답했다.

'수사반장 1958' 연출 및 집필 소감

레전드 국민 드라마 '수사반장'의 프리퀄 작업을 함께 하게 된 이들은 "영광"이라고 입을 모아 답했다. 먼저, 김 감독은 "고민보단 영광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뜻 참여 의사를 보냈다. 오히려 결정 이후 제작을 준비하면서 무게를 체감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전설로 남은 콘텐츠라는 현실의 자각이 온 것"이라고 솔직한 소회를 밝혔다. 김 작가는 "좋은 기회로 제안을 받았다. '수사반장'이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의 프리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또 존경하는 박재범 작가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니 무조건 하겠다는 마음이었다"라고 전했다.

크리에이터로 합류한 박 작가는 "근래 자극성 위주의 수사물이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사반장 1958'은 자극과 불쾌감 없이도 충분한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참여를 결심한 특별한 이유를 공개했다.

35년 만에 돌아오는 '수사반장'이 갖는 의미와 가치

김 감독은 "오리지널 '수사반장'은 드라마 그 이상이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어 다큐멘터리 혹은 뉴스 같은 기능도 있었고, 무거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아픔과 피해를 해결해 주는 히어로물 같은 역할도 했었던 것 같다"라고 원작이 가진 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왜 '수사반장'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김 작가는 "원작에서 논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통찰이 현재 사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무너진 모습을 자주 본다. '수사반장'은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박 작가는 "드라마사(史)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며 "대한민국 수사물 장르와 시즌제 드라마의 효시로, 50여 년 전 이미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다. 지금까지 회자되는 '박 반장'이라는 불세출의 캐릭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설명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제작진에게 미리 듣는 연출 및 집필 포인트

김 감독은 시대적 배경인 50년대 말, 60년대 초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전쟁 후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사진 자료에서 갓을 쓴 노인과 양복을 입은 청년, 소달구지 옆으로 가는 자동차 등에 눈이 갔다. 그래서 미술에서 이런 조합들을 잘 믹스하려고 했다. 색도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게 써보려고 노력했다"라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기대케 했다. 김 작가는 "DNA 검출은 물론 CCTV나 녹취 증거물도 없는 환경에서 범인을 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에서 현대 수사물과는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으리라 여겼다"라며 "주인공인 박영한 형사는 타고난 감과 반짝이는 재치, 집요한 수사력으로 위기를 헤쳐 나간다. 젊은 시절 박 반장의 비범한 모습을 선보이기엔 이보다 탁월한 시대가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작가는 '뉴트로'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작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수사반장'을 시청한 세대와 '수사반장'을 모르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라며 "그래서 향수와 추억만 주는 '레트로'보다는, 생경함과 흥미를 함께 줄 수 있는 '뉴트로'적인 요소들을 많이 첨가했다"라고 밝히며 기대를 더했다.

이제훈X이동휘X최우성X윤현수, 새로운 전설이 될 종남서 형사 4인방

배우들에 대한 제작진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김 감독은 "이제훈 배우의 얼굴에는 클래식함과 모던함이 절묘하게 섞여 있다. 우리 드라마의 콘셉트와도 잘 맞아떨어졌다"라며 "처음에는 이제훈 배우와 함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훈 배우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라고 그를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이동휘 배우는 무엇이든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매력이 있다. 영화 '공조'를 작업할 때도 그런 지점에서 고마웠다. 그래서 이번 작품도 함께하게 됐다. 그 시대와 인물을 '진짜'로 만들어줄 배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오디션을 통해 합류한 신예 최우성, 윤현수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했다.

"최우성 배우는 촬영을 얼마 안 남기고 합류했는데, 실제 고(故) 조경환 선생님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20kg 이상 증량까지 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함께해줘서 고마웠다.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깊고, 역할을 위해 뭐든 마다하지 않는 그의 매력이 보시는 분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현수 배우는 오디션에서 침착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마음속으로 내정했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습을 했을지 알기에 더욱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다"라고 연이어 칭찬했다.

'수사반장'에는 없고 '수사반장 1958'에만 있다! 오리지널과 프리퀄의 차별점

원작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김 감독은 "어떤 비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내비치며 "다만 우리가 열광했던 '수사반장'의 박영한 형사와 그 팀이 히어로가 되기까지 걸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젊음을 경험하실 수 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성장한 그들의 탄생기가 차별점"이라고 짚었다. 김 작가는 "젊은 시절 혈기 넘치는 형사들의 열정과 딜레마, 진득한 우정을 녹여내고자 노력했다.

원작의 인물들보다 무모하지만 낭만적이고, 재기발랄한 케미스트리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박영한이 어떻게 휴머니스트 수사반장으로서의 격을 갖추게 될지, 영웅의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작가도 "말 그대로 '프리퀄'이 주는 재미"라며 "'박 반장' 박영한의 출신과 연애사, '김 형사' 김상순의 똘기와 객기, '조 형사' 조경환과 '서 형사' 서호정의 운명 같은 경찰 입문기" 등을 차별점으로 꼽았다.

기다림마저 설레는 첫 방송 D-7. 본방사수 전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

마지막으로 김 감독은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수사반장'이 다시 돌아온다. 그동안 받았던 사랑의 무게를 무겁게 마음에 새기고 매 장면에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며 좌충우돌했던, 우리가 사랑했던 그들의 젊은 시절을 즐겨주시면 좋겠다"라며 "'수사반장'을 기억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추억을 되새기는 기분 좋은 기회가 되기를, '수사반장'을 모르시는 분들께는 지난 시절 우리의 슈퍼맨이자 배트맨이던 예전 히어로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진심이 담긴 당부를 전했다.

김 작가는 "모든 일이 이치대로 돌아가는 고향 황천과는 달리, 권력을 쥔 나쁜 놈들의 천하인 종남에서 박영한이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가며 형사 3인방과는 어떠한 인연으로 함께할지 지켜봐 달라"고 첫 방송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여기에 박 작가도 "전설이 된 박 반장의 청년기와 형사들의 활약, 그리고 야만의 시절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관전 포인트다. 통쾌하고 훈훈한 수사물 '수사반장 1958'을 많이 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시청을 독려했다.

MBC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은 오는 19일(금)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공직자 대상 'UNIST와 함께하는 반도체 직원 교육' 개최

이상일 시장, 시 공직자들과 함께 강의 참석…반도체산업 발전에서 용인의 역할과 지원 방안 논의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일 시 공직자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 1층에 마련된 'UNIST-용인특례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에서 'UNIST와 함께하는 반도체 직원 교육'을 열었다.

전문가를 초빙해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일반상식부터 주요 생산국의 산업지원 정책, 세계 반도체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이 교육에는 이상일 시장도 직접 참석해 약 2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청취하고 용인특례시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날 교육은 총 3개 강의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강의는 강성철 울산과학기술원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약 한 시간 동안 반도체산업의 생태계와 전 세계의 반도체산업을 위한 지원과 중점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중 수반되어야 할 사항과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정부가 진행 중인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유치하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유치를 위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강성철 교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용인특례시에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입주 의향은 높지만 부지의 한계가 있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 중인 안성시와 협력하고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하는 반도체산업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소자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집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인특례시는 이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는 안근옥 SK하이닉스 전무(NAND Flash 개발본부장)의 '반도체 기술 및 산업 동향'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반도체산업 기술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마지막으로 정순문 울산과학기술원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 특임교수가 약 한 시간 동안 '반도체 제조 및 소자 기술'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현 주소를 듣고, 향후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논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생산 공정,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대만의 정책과 산업현황을 듣고, 질문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UNIST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UNIST와 함께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범상/기자

'비(B)-스타트업 챌린지(창업투자경진대회)' 본격 개막!

6.19. 부산 이(e)스포츠 경기장에서 부산 대표 창업투자경진대회 개최

부산시는 오는 6월 19일 '비(B)-스타트업 챌린지(창업투자경진대회)'를 부산 이(e)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와 비엔케이(BNK)부산은행, 부산문화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 비엔케이(BNK)벤처투자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부터 개최돼 올해 6회째를 맞이하며, 현재까지 총 25개의 수상 기업을 배출하고 240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한 부산의 대표 창업투자경진대회다.

이 대회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기 투자를 받기 어려운 창업기업들이 본 대회의 3억 원 규모 종자(시드) 투자와 연계 사업 지원 및 후속 투자유치를 받음으로써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2019년 최우수상 수상 기업 ▲'말랑하니'(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는 본 대회 수상 이후 16개 제품이 네이버 분야별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연 매출 97억 원(2023년 기준) 달성과 28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받았다.

2021년 특별상 수상 기업 ▲'메디프레소'(티캡슐과 커피&티캡슐머신)는 국내 최초 한방 원재료를 활용해 캡슐화 및 캡슐머신 고압 추출을 상용화했다.

연 매출 4억 원(2023년 기준) 달성과 70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받았으며, 2023년 중기부 포스트팁스*에도 선정됐다.

2021년 우수상 수상 기업 ▲'테라클'(친환경 특수 보도블록)은 세븐일레븐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연 매출 21억 원(2023년 기준) 달성과 1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본 대회 참가 이후 눈부신 성과가 있었다.

대회 지원 자격은 창업 5년 이내 신생기업(스타트업)으로, 지역 제한은 없다.

관심 있는 기업은 오는 4월 26일까지 부산창업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술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예선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은 오는 6월 19일 부산 이(e)스포츠경기장에서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수상 기업에는 총 3억 원 규모의 지분투자가 진행되며, 투자 금액은 대상 1억 3천만 원, 금상 8천만 원, 은상 5천만 원 등 비엔케이(BNK)부산은행에서 전액 출자한다.

투자 외에도 ▲부산은행 '썸(SUM)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지원 ▲슬러시드(Slush'D), 플라이 아시아(FLY ASIA) 행사 연계 ▲부산시 기술창업 육성(인큐베이팅) 지원 등 참가 기업에 다양한 후속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조 시 금융창업정책관은 "우리시는 수도권 중심의 투자 환경 극복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미래성장벤처펀드'를 지역 주도로 조성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라며,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전국의 초기 창업기업들이 '창업하기 좋은 부산'에 머물며 투자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김희태/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베트남 정부·기업·대학과 협력관계 구축 나선다

베트남 농림부 등 5개 기관, VTV, VTC Online, 3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추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베트남 정부, 기업, 대학, 지자체와의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산업 바이오특화단지 등 특구지정 및 기업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출장에 나선다.

이 시장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 동아잉, 닌빈, 다낭시를 자비로 방문한다. 이 시장은 베트남 농림부, 하이즈엉성 인민위원회, 동탑성 인민위원회, 제약농업협동조합, 메콩과학기술교육응용연구소와 농업 및 농식품산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기관인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갖고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고양시와 베트남간 협력, 고양시 기업의 베트남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베트남 국영방송(VTV)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VTV의 자회사 VTV 케이블과 방송 미디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베트남 최대 디지털 콘텐츠 기업인 VTC Online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미디어, 게임, 교육,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베트남 최대 기업인 Vin 그룹이 설립한 국제사립대학인 Vin 대학 창업랩을 방문하고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캠퍼스 설립 및 교육·연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도 동아잉시, 닌빈시, 다낭시 시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적 협력·우호관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주한 베트남관광청 대표부(관광대사 리 쓰엉 깐)와 관광·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개발, 공동마케팅, 관광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베트남은 인구 약 1억명, 평균연령 32.5세, 경제성장률 6~8%에 달하는 젊고 활기찬 국가이며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향후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며 "베트남 기획투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와 국영방송 VTV, 콘텐츠기업 VTC Online, 베트남 최대기업 Vin그룹이 설립한 Vin 대학 등 주요 기업·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고양시 기업 해외진출, 미디어, 영상콘텐츠,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경남도, 대학-기업과 원전 인력양성 위해 머리 맞대

12일, 원전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합의

경상남도가 12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대학,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신대학교를 비롯한 8개 대학과 두산에너빌리티, (주)삼홍기계,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주), 하이에어코리아(주), 비에이치아이(주), 고려정밀공업, 경남테크노파크 등 원전분야 대학과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 라이즈 계획과 도내 원전 관련 대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원전 분야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과 인력양성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기술확보 및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 라이즈를 통해서도 산업수요에 기반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술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원전산업의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즉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한 인력의 양성과 외국인에 대한 교육과 비자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학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2025년 시행 예정인 경남 라이즈 세부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방위, 항노화 등 전략산업의 지역-대학-기업 협업모델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장재현/기자

보성군, 보성다향대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수용태세 개선사업 최종 선정

축제장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특화 먹거리 개발 기대

보성군은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지역 축제 수용태세 개선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축제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65개소 중 전담 조직 역량, 지원 필요성, 실행 가능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결과 보성다향대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여주오곡나루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총 5곳을 선정했다.

보성군은 올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비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보성다향대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성애(愛) 물들다(茶), 애프터눈 티(Tea) 파티, 찻잎 따기 등의 이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축제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보성만의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보성차(茶)를 기반으로 한 먹거리 상품 개발, 먹거리 유통채널 구축, 전문가 컨설팅, 반짝매장(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국내외 대규모 박람회,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축제장 내에서 먹거리 및 요리법을 발굴할 수 있는 행사를 규모화, 체계화한다. 전국의 실력자들이 참가하는 경연 대회 '보성 티 마스터 컵(디저트 분야)', '보성 홈스토랑 마스터셰프(요리 분야)' 등을 추진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대상 작품을 상품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생산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안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에서 상시 판매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보성다향대축제의 먹거리가 한층 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성만의 특색 있는 맛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보성을 찾는 이유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보성다향대축제를 비롯해 △보성군민의날,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녹차마라톤대회, △전국요트대회, △데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

최원영/기자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초대박'

개장전 남미륵사 앞 '줄서기' 진풍경 축제 5일차, 전년 대비 88% 방문객 늘어

'핑크빛 봄의 미소'를 주제로 4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개최하는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가 개장 5일만에 전년대비 88% 늘어난 7만 6천여 명의 관광객이 들며, 사상 초유의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축제장인 남미륵사 앞에는 평일인 9일에도 개장 전인 오전 7시 30분부터 대기줄이 길게 이어지는 등 귀한 꽃, 서부해당화를 보려는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며 축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여기에 서부해당화가 점점 개화하며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오랜 기다림 끝에 영접한 서부해당화의 자태에 감탄하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임시휴일이었던 10일에는 군동면부터 축제장까지 3km 구간 차량 정체가 이어지며, 네비게이션을 켜고 온 외부 관광객들이 신기마을 교차로까지 진입했고, 수백 대의 차량에 일일이 정체시간을 응대할 수 없어 현장 근무에 나선 공무원들이 급조한 안내문을 허리에 두르고 손에 들며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강진원 군수는 임시휴일, 선거업무를 살피다 축제 현장에 나타나 주차와 교통 대책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단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불편을 겪지 않고 만족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에 진땀을 흘렸다.

특히, 지난해보다 주차공간을 대폭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파가 많이 몰리며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도로변에 개별 주차하고 걸어가는 인원이 대거 발생함에 따라, 강진원 군수는 신속하게 45인승 버스 3대를 투입해,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축제장 입구까지 운송하며, 축제에 특화된 도시의 발빠른 대응력을 뽐냈다.

이날 오전부터 막히는 교통상황으로 일부 차량은 강진군의 다른 관광지를 돌아보고 다시 오기도 했지만, 많은 인파가 몰리며 최소 수백 대의 차량은 서부해당화를 보지 못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행사장의 진출입로는 일방통행으로 조정해, 축제를 즐긴 관광객들이 신속하게 돌아가도록 했으며, 차량 정체로 오히려 서부해당화 숲길은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인근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할머니 장터'의 상품들은 일치감치 '솔드아웃'을 기록하며 인기행진을 이어갔고, 상인들은 집에서 다시 상품들을 급조해 다시 진열하는 기분 좋은 풍경도 펼쳐졌다.

남미륵사 입구에 마련된 강진군 플리마켓인 '강진만 노을장'에도 꾸준히 손님이 들며, 수공예 제품부터 병영 설성까페 라떼까지 상인들은 군의 기대보다 더 매출이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5일간 탐진사인부녀회의 꽃동네 주막촌과 초록믿음(농특산물), 노을장을 합쳐 2,562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며, 성공 축제의 경제 효과를 다시한번 입증했다.

플리마켓 안쪽에 자리한 봄소풍음악회는 서부해당화의 핑크색에 맞춘 로맨틱한 무대와 하늘거리는 루프탑을 조성해,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노래를 라이브로 진행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안전복을 입은 동네 어르신들은 축제장 주변을 정화하며 축제 진행에 일손을 보탰고, 군동면 의용소방대원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마을 혼잡 구간을 정리하는 등, 주민들이 똘똘 뭉쳐 성공축제를 만들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관람을 마친 관광객들의 행렬은 다시 인근 강진군내 다양한 관광지로 흩어졌으며,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병영면의 식당들에도 인파가 몰리며, 일대 식당들은 재료소진으로 일부 손님들을 그냥 돌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10일 저녁, 치킨, 커피숍, 일반식당, 오감통의 16개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하루동안 강진읍내 식당들 가운데 주차시설이 잘 구비된 식당을 위주로 당일 조기 마감됐으며, SNS를 통해 많이 알려진 시장내 '쨈과 크림', '26빵집'등에는 젊은층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역시 재료가 조기 소진돼 고객들을 다 받지 못했다.

배달도 덩달아 늘어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기준(전체 배달 50% 차지)으로 전주 대비 70%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경제 파급효과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고르게 돌아갔다는 평가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남미륵사 서부해당화라는 강진의 문화관광자원을 '축제'의 이름으로 개발해 더 많은 분들이 강진에 와서 소비하고 강진에 대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간다면, 이것이 바로 군의 브랜드력을 높이고 동시에 축제-관광-경제의 패키지를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군은 축제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13일과 14일에도 단거리 셔틀버스를 운행해, 차량 혼잡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교통 관련 문의는 강진군 축제마케팅 추진단, 안전재난교통과로 하면 된다.

추윤호/기자

해남군 5월 5일 어린이날 공룡축제도 즐기고, 재능도 뽐내봐요

해남공룡대축제 기간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열려

해남군은 2024년 해남공룡대축제를 맞아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해남공룡대축제는 오는 5월 4~6일 3일간 공룡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특히 5일에는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과 함께 모범 어린이 표창,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그림그리기 대회 주제는'쿵쿵! 공룡과 함께 뛰어노는 해남 대모험'으로 참가 대상은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이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으로 100명으로, 사전 신청으로 70명, 대회 당일 현장 접수로 30명을 모집한다.

사전 신청을 희망하는 아동은 군 누리집을 통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한 어린이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그림그리기 대회 부스에서 현장 등록을 하고 도화지를 배부받아 대회에 참가하면 된다. 도화지를 제외한 미술도구, 돗자리 등은 각자 준비해야 한다.

시상을 통해 유치부와 초등부 최우수상에 각각 해남사랑상품권 30만원 등 총 16명에게 상장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한편 2024년 공룡대축제는 어린이날 연휴 3일동안 열린다. 국내최대 규모 공룡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잔디광장을 개방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각종 공연과 공룡놀이터 운영, 야간개장과 불꽃쇼 등을 다채롭게 마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해남에 모여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공룡박물관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갑문/기자

사천 구경(9경)가자! 제3회 청룡사 겹벚꽃축제

호국승병제, 음악회, 시화전, 겹벚꽃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

사천시의 대표 명산인 와룡산 자락에 위치한 청룡사가 사천 9경 중 하나인 청룡사 겹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4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제3회 청룡사 겹벚꽃 축제'를 연다.

겹벚꽃 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연을 찾던 상춘객들이 청룡사 겹벚꽃 개화시기에 폭발적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올해로 3번째 돌을 맞이한다.

청룡사는 와룡산 와룡사의 산내 암자인 진불암의 옛터로, 40년전 장룡선사 창건 당시, 겹벚꽃을 심어 사찰을 장엄한 것을 인연으로 축제로 이어지게 됐다.

겹벚꽃은 일반 벚꽃보다 2주 정도 개화시기가 늦으나, 꽃송이가 크고, 꽃잎이 진한 핑크빛을 띄고 있어 그 풍성함과 화려함이 볼거리이다.

청룡사 겹벚꽃은 지난해 사천시에서 새로 정비한 '사천9경'에 선정돼 축제 기간동안 1일 약 2,000여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청룡사 극락 계단은 줄을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Photo-Zone)으로 유명하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음악회, 강원석 시인(너에게 꽃이다)의 시화전, 겹벚꽃마켓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같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특히, 14일에 열리는 호국승병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와룡산 승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의미 깊은 행사로 참석자에게 깊은 여운과 감동을 준다.

청룡사 주지 지선스님은 "승군들의 후손인 우리는 승군들의 호국정신과 생명사랑 정신을 본받아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각 개인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송이로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주) 이든 전보기술 공사현장

경기도 광명시 158-509일대 광명4동 제 11지구 아파트 (통신) 관로공사 현장이 한진아파트 앞대로 3차선을 작업 차량 포크레인 장비 승용차등이 2개 차로를 차단 점유하여 고통 소통의 막중한 지장을 초래 정체 현상을 위반하고 있으며 더욱이 안전은 뒷전 인도 일부 구간을 자재 적재 차량과 작업장으로 사용 이 구간을 사용 지나가는 행인 들을 차도로 내몰아 위험천만한 작업 진행을 하고 있으며 대형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책임자인 현장 소장 또한 부재중으로 일부 작업중인 안전모도 미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사 개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으며 막중한 분진과 소음으로 주변 상가들이 피해 를입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전혀 없다는 주민 박모씨(62)는 이처럼 막가파식 공사현장은 아직 까지 본 바가 없다며 굴착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를 입어 몹시 불쾌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 158-509일대 광명4동 제 11지구 아파트 (통신) 관로공사 현장이 한진아파트 앞 대로 3차선을 작업차량 포크레인 장비 승용차등 으로 2개 차로를 차단 점유하여 고통 소통의 막중한 지장을 초래 정체 현상을 유반하고 있으며 더욱이 안전은 뒷전 인도 일부 구간을 자재 적재 차량과 작업장으로사용 이 구간을 사용 지나가는 행인들을 차도로 내몰아 위험천만한 작업 진행을 하고 있다.

대형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책임자인 현장 소장 또한 부재중으로 일부 작업중인 안전모도 미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동일/기자

성남시, 개 식용 업체 신고 5월 7일까지 접수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기한 내 미신고시 전업·폐업 등 지원 대상 배제

성남시는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이 공포된 이후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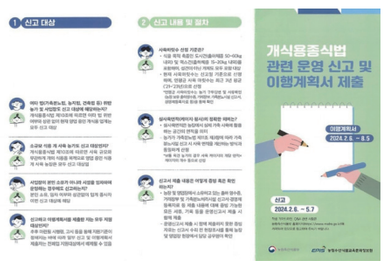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운영신고확인증 발급 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아울러 신고한 업소에는 전·폐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관련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서울시, 봄나들이 철, 지하철 음주 승객 사고 주의보… 올해 1분기 민원 2500여 건

직원 폭언·폭행 사례 중 음주 승객 원인 72.7%…직원과 고객 상호존중 필요해

봄나들이 철을 맞아 음주로 인한 지하철 승객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1분기(1월~3월)에만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로 접수된 취객 관련 민원(문자)은 총 2545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76건 증가한 수치다.

서울교통공사는 꽃샘추위가 끝나고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지하철 승객이 증가하면서 음주로 인한 넘어짐, 폭행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나들이 승객이 증가하는 4월부터 2개월간 음주로 인한 넘어짐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많은 34개 역사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주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는 사고이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의 넘어짐 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이동 중이던 타인까지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2024년 3월 31일 16:46경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50대 남녀 취객이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졌고, 뒤에 있던 80대 여성 2명도 이에 휘말려 함께 넘어졌다. 긴급히 출동한 직원과 119의 구호를 받은 후 80대 여성 1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2024년 3월 19일 19:35경 3호선 연신내역 내부계단에서 음주를 한 남성 승객이 계단을 오르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여성 승객이 함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 고객이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주변의 승객과 다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

음주 사고 사례는 넘어짐 사고 외에도 다양하다. ▲화재 수신기 임의 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로 이용시민 혼란야기 ▲다른 승객과의 다툼 과정에서의 소화기 분사 ▲기물 파손 ▲에스컬레이터 점검 작업자 안전 작업 방해 등 넘어짐 사고 외에도 음주 승객들의 돌발행동으로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3월 1일 01:25경 30대 남성 승객이 3호선 가락시장역에서 영업이 종료됐음에도 역사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통로에서 서성이다가 소화전 발신기를 작동시켜 화재경보가 발생했다.

2024년 3월 23일 15:20경 50대 남성 취객이 2호선 대림역에서 아이센터 아크릴문을 파손하고 직원의 제지에도 계속된 소란 행위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경찰에게도 폭언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4년 3월 8일 19:55경 2호선 역삼역에서 음주 승객이 이유 없이 개찰구를 발로 차고 있어 직원이 제지했으나 계속 폭언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2024년 2월 19일 17:19경 만취 승객이 6호선 월곡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보완 작업 중인 작업자에게 시비를 걸며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하여 경찰에 연행됐다.

역직원과 지하철보안관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는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2021년부터 현재(2024년 2월)까지 직원이 주취자로부터 폭언·폭행당한 사건은 527건이다. 특히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전체 폭언·폭행 피해 사례 중 음주로 인한 비율이 72.7%에 달하고 있다.

음주 폭력의 문제는 음주자가 직원이나 다른 승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돌발적으로 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법권이 없는 지하철 직원들은 해당 승객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119가 출동하더라도 이들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2024년 3월 28일 15:20경 음주 승객이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5호선 행당역 직원이 출동하여 5호선 신금호역까지 이동하며 소란을 멈추고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과 가방으로 직원과 주변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경찰 출동하여 체포됐다.

2024년 2월 7일 17:10경 제기동역에서 80대 음주 승객이 질서유지 근무 중인 보안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몸을 밀치면서 폭언해 보안관이 두 차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만취 승객은 경찰에 연행됐다.

2024년 3월 11일 07:08경 50대 남성이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하모니카를 불며 주변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직원이 출동했다. 역 직원에게도 폭언과 자살을 하겠다며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언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사는 지하철 음주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이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사고 개연성 등 '음주'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 예절을 지키면서 직원과 고객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직원은 지하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의 요청 사항에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불편 사항이 있다면'고객의소리'등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음주 승객 한 명의 부주의한 행동이 자칫 다수 이용객과 본인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라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지하철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존중하며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의정부시,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정부 합동점검 실시

의정부시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의정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 정부 합동점검은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학버스 운영 어린이집 중 합동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 10개소(차량 10대)를 선정, 의정부문화재단 대형주차장에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 좌석 안전벨트 체결 불량 여부 ▲어린이 보호표시등 및 비상등 ▲승강구 높이와 보조 발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대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없는 통학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봄,
영양으로 GO!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 9일(목)-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_ 영양군 YEONGYANG-GUN
주관_ YFTF 영양축제관광재단 Yeongyang Festival & Tourism Foundation

경북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04억 증액 편성

경북교육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임종식 교육감, **"추가경정예산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비와 아이들 최상 교육환경에서 최고 학습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향후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12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5조 4,541억 원 대비 1,904억 원(3.5%)이 증가한 5조 6,445억 원이며, 세입 예산은 보통 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593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24억 원, 기타 이전수입 24억 원, 자체 수입 337억 원, 전년도이월금 8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이다.

세출 예산은 늘봄 확대, 디지털 교육 등 국정과제와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법정 의무지출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연도 내 집행 여력을 자세히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시설 사업의 집행 여건을 분석하여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여 필요 사업에 재원을 재배분하고, 향후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 전입금을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따뜻함을 더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 246억 원,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25억 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55억 원, 졸업앨범비 14억 원,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비 4억 원,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13억 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를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65억 원, 자율형 공립고 10억 원, 책임교육학년 지원 26억 원,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11억 원, IB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영어 인증제 운용 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121억 원, 공간혁신 50억 원, 내진 보강 156억 원, 석면 제거 246억 원 등 학교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에 1,069억 원을 투입했다.

▲교원 교육활동 보호/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활동보호센터 운영 7억 원, 교원 담임수당, 보직 수당, 특수 교육수당을 비롯.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 인상분을 반영, 교원 인건비 172억 원을 증액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최고의 학습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며, "향후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3일 확정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공직 설명회' 개최

지역 대학 재학생과 공무원 수험생 대상 교육행정 직렬 소개

남부권 대구대학교, 북부권 안동대학교 두 곳에서 개최

임종식 교육감, **"이 설명회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 교육행정 분야 정보와 공직 체험 기회 제공, 공직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 우수 지역 인재 영입에 이바지할 것 기대해"**

경북교육청은 오늘 15일,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웅지관과 16일 안동대학교 어학원 시청각실에서 지역 대학생과 공무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대학 재학생들과 공무원 수험생에게 경북교육청 교육행정 직렬을 소개하여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공무원 인기 하락이라는 문제를 지역의 젊은 인재 영입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북교육 홍보영상과 토크콘서트 형태로 구성하여 학교와 도서관, 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공직체험프로그램 코너 안내를 통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소속기관과 참여 희망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에게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정보와 공직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지역 인재 영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 169명의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유공 모범운전자 표창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원에 감사의 마음 전해

하윤수 교육감, **"부산교육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모범운전자 여러분께 부산교육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전략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송 등에 힘을 보탠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원 1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장 수여는 수능 당일 교통정리와 학생 수송 등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회원 339명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장 등 140곳에서 현장 자원봉사에 나서는 한편, 비상 수송 차량 67대로 구성된 수송봉사대를 운영했다.

또한, 이들은 도시철도역과 교차로 등 주요 지점에서 교통 정리 등 봉사활동에 나섰고, 지각생·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수송을 돕는 등 수능시험의 안정적 운영에 힘썼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우리 수험생들이 지난 수능 시험에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며 "부산교육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부산교육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지역 교육 발전, 우리가 책임집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2일,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서 전국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가, 경남미래교육지구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마을이 협력해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토론회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네 명의 토론자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는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본 마을 교육 공동체의 방향'을 주제로 학교-지역의 연계 사업 및 국외 평생 교육의 지역화 동향 등을 만들어 가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토론자 네 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과 연결되는 마을 교육 공동체 ▲농어촌 지역민의 배움이 학생과 연결되는 통영 마을 교육 공동체 ▲지속가능발전(SDGs)과 마을 교육 공동체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남미래교육지구 관계자는 "지역 교육 발전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남미래교육지구가 중간 역할을 더욱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Wee프로젝트' Wee센터(구미-김천) 업무 교류 및 협의회 실시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9일(화) 2024학년도 Wee센터 운영 발전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김천교육지원청 Wee센터에 방문하여 Wee센터(구미-김천) 업무교류 및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Wee센터(구미-김천) 업무교류 및 협의회는 2024학년도 Wee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도모하고, 위기학생 지원방안 및 학업중단 예방 활동 방안 모색을 위해 실시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각 센터 구성원 및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우수 운영 사례와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구미Wee센터 최희정 전문상담교사는 "2022년에 개소한 김천Wee센터의 시설 견학으로 상담 환경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각 센터의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들으며 Wee프로젝트 운영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수권 교육지원과장(구미Wee센터장)은 "Wee센터(구미-김천)의 업무교류 활동과 협의회를 통해 각 센터의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구미Wee센터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김천교육지원청Wee센터, 1차 Wee프로젝트 연수 및 협의회 실시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9일(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업무 담당자 41명을 대상으로 김천교육지원청 Wee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1차 Wee프로젝트 연수 및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 및 협의회는 Wee센터 연간 주요 행사 안내, 학업중단숙려제(New-Start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에 대하여 안내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협의 시간을 가졌으며, Wee클래스와 Wee센터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Wee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특히 김천경찰서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등 소규모 집단토론을 통해서 효과적인 Wee클래스 운영 방안과 위기상담 사례의 개입 방안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김천교육지원청 이기협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Wee프로젝트 연수 및 협의회를 통해 단위학교와 Wee센터간의 정보 공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김동현/기자

학교급식 점검, 불시에 나선다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2.(금), 학교급식 점검단 12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대비 교육 및 사전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학교급식 점검단의 주요 기능과 방문 시 유의사항 및 점검항목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였다.

경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점검단은 평생교육건강과장을 단장으로 경산교육지원청 공무원 2명, 경산시청 공무원 1명 및 관련자 2명, 초·중·고 학부모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학교급식소를 방문해 검수, 전처리 과정, 조리, 보존식 관리, 식재료 보관 및 배식, 세척 등 급식전반에 대한 전 과정을 점검한다. 상반기에는 특히 학교급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변경에 따른 검사기간 준수여부를 5월말까지 집중 점검하며 이후 연중 상시적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교급식점검단 활동 시작 전 점검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체적 점검내용과 점검방법, 점검자 유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고 점검단원들과 상호 점검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박경화 교육장은 "올해 학교급식 점검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하며 격려하였다.

송광삼/기자

'잃어버린 청춘' 잊혀진 기억 학도병 선배님을 찾은 경주 학생들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4년 지난 11일(화), 경주지역 학도병을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 및 전시 사업을 위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터뷰는 산내고등공민학교 출신 김기봉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에는 문화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 김영찬, 김현민, 문경현, 손동현, 최민규(1학년) 등 5명이 참여하였으며,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편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은 학도병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당시의 상황을 직접 전해들을 수 있었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학도병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손동현 학생은 "우리와 같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것이 놀라웠고, 어린 나이에도 그런 결단을 하셨다는 것이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같은 나이, 다른 삶을 사셨던 학도병 선배님들을 보며 다양한 교훈을 얻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방심은 한 순간, 언제나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시작'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금), 13일(토) 양일간, 영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관내 학교 교사 17명이 참여하였고,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소속 이태경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연수는 총 15차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환자평가 및 쇼크 처치,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 상처 처치 등을 내용으로 하며, 교육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이루어졌다. 5월에는 관내 학생들의 울릉도·독도 체험학습이 예정되어 있어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인솔은 늘 부담과 두려움이 앞서는데, 여러 상황을 가정하는 등 현장 맞춤형 실습을 통한 교육을 받으니,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거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안동고, 박우주 · 도겸' 제59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복식 우승

박우주와 도겸이 '하나증권 제59회 전국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대회' 16세부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거뒀다.

박우주-도겸 조는 9일 전북 순창군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복식 결승에서 이장준(예천중)-정상교(수곡중) 조를 6-1, 6-1로 꺾었다.

박우주-도겸 조는 앞서 3월 말 순창에서 열린 2024년 전국종별테니스대회에서 복식 3위에 오른 아쉬움을 이겨내고 이번 대회에서는 정상에 올랐다.

우승을 거둔 박우주는 경기 후 대한테니스협회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입학하여 복식 첫 우승 타이틀이어서 좋았고 (도)겸이와 함께해서 뜻깊었다. 앞으로 같이 국제 국내 대회도 뛰려고 하는데 오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겸은 "대회기간 동안 힘들었는데 잘 이겨냈고 잘 끌어준 (박)우주에게 고맙다. 다음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싶다. 이번 경험을 잘 살려서 오는 10월 김해에서 개최되는 제 105회 전국체전에서도 우승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경상북도
경 주 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